Style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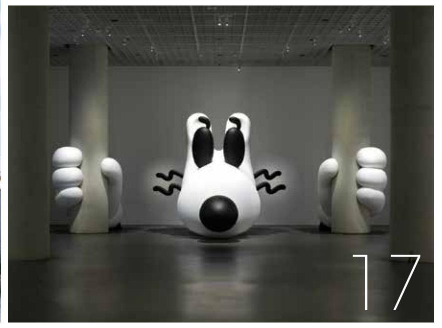
APRIL 2024
vol. 267

TRINITY
Cartier

문의. 02 3280 0104

온라인 부티크. Dior.com

breguet.com
Reine de Naples
8918
나폴리의 여왕,
카롤린 보나파르트 뮤라는
34개의 브레게 시계를 소유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Make History with us.
Breguet
Depuis 1775



올해로 출시 100주년을 맞이한 까르띠에의 트리니티는 하나의 트리오로서 조화롭게 결합한 옐로 골드,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로 이루어진 3개의 링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보여준다. 가족, 친구, 연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사랑을 상징하는 트리니티는 그 자체로 사랑과 영원함을 뜻한다. 문의 1566-7277

14 **프로방스의 작은 도시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 프로방스(Provence)는 웬만해선 사랑에 빠지지 않기가 힘들 정도로 매력이 흘러넘치는 지역이다. 기나긴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 제일 먼저 들러보고 싶은 순위권에는 아를(Arles)이 최상단에 위치한다. 명예로운 유네스코 헤리티지 사이트일 뿐 아니라 유의미한 변화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는 아를을 찾아가봤다.

16 **LIFE GOES ON AND ON** 어린 시절부터 거리에 낙서화를 그리며 성장한 작가 에디 마티네즈(Eddie Martinez, b. 1977)는 그래피티와는 또 다른 아름다운 화폭을 만들어내며 현대미술 컬렉터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그가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개인전이 열리는 서울을 방문했다.

17 **멈추지 않는 세계** 스티븐 해링턴(Steven Harrington, b. 1979)의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동감, 사람보다 큰 캐릭터 조각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스티븐 해링턴의 작품을 탐구할 수 있는 전시가 7월 14일까지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에서 열린다.

18 **ETERNAL UNIVERSE** 해, 달, 그리고 별 등 천체에 있는 신비스러운 것들은 오래전부터 주얼리 메종이 사랑해온 모티브다. 하늘에 있는 것들보다 더 반짝이는 주얼리 유니버스.

19 **SHINING MOMENT** 손목에서 은은한 광채를 뽐내며 우아한 제스처를 선사해줄 주얼리 워치 셀렉션.

20 **HISTORICAL MOMENT OF TRINITY** 지난 한 세기 동안 사랑받아온 메종의 아이코닉한 컬렉션, 트리니티(Trinity). 그 1백 년의 시간을 기념하기 위한 메종 까르띠에의 열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24 **KING OF DIAMONDS** 고품질 다이아몬드와 스톤, 전통 깊은 주얼리 제작 노하우로 아름다운 주얼리 컬렉션을 끊임없이 선보여온 그라프의 아름다운 역사와 여정에 관한 이야기.

26 **SPRING MATE** 따스한 봄 날씨에 걸맞은 산뜻한 컬러와 디자인의 뉴 백 & 슈즈.

27 **BRILLIANT HERITAGE** 루이 비통의 아이코닉한 모노그램을 담아 더욱 빛나는 LV 다이아몬드 컬렉션.

28 **BAGS ON TOP** 새로운 시즌, 그녀를 유혹하는 2024 뉴 잇 백 포트폴리오.

36 **AN IDYLLIC SANCTUARY** 남프랑스풍 럭셔리로 유럽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은 코키야드 프로방스(Coquillade Provence)는 첫인상부터 지친 심신을 보듬어주기라도 할 듯한 평화롭고 정겨운 '안식처'로 다가왔다.

37 **BRAND-NEW BEAUTY** 아모레퍼시픽이 타고난 피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성능 하이엔드 스킨케어 에이피 뷰티(AP BEAUTY)로 재탄생한다.

38 **EDITOR' S PICK** 봄철 피부 고민은 덜어주고 프레시함을 채워줄 이달의 뷰티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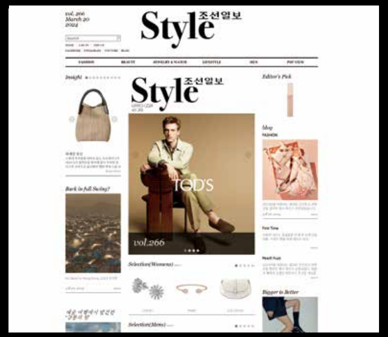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Issue.267 April 202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 **신정임** sji@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제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12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m

URBAN LADY

랄프 로렌 하우스를 대표하는 웰링턴 라인에서 새로운 미니 사이즈 버전의 숄더백을 선보인다. 내구성은 물론 유연성이 뛰어난 최고급 가죽 소재인 풀 그레인 카프 스킨으로 제작했으며, 내부는 부드러운 스웨이드로 완성했다. 말안장에 달린 등자의 매끄러운 윤곽을 닮은 폴리시 스크럽 버클을 장착해 랄프 로렌의 헤리티지를 드러냈으며, 탈착할 수 있는 스트랩 끈이 있어 무드에 따라 톱 핸들, 숄더 및 크로스 백으로 다채로운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다. 블랙, 브라운, 베이지 등 클래식한 컬러로 만나볼 수 있으며, 유려한 곡선의 백 실루엣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더불어 핸드메이드로 완성한 에지 디자인으로 마무리해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3백만원대. 문의 02-3467-6560

POWER OF WOMEN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브레게가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성을 예찬하는 새로운 여성 워치를 선보였다. 바로 가장 아이코닉한 컬렉션인 레인 드 네이플을 재해석한 타임피스 '레인 드 네이플 8918'. 지성과 문학적 재능을 갖추고 예술과 어린 소녀들을 적극 후원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의 여동생 카롤린 뮤라(Caroline Murat)에게 영감받아 1810년 그녀의 요청에 따라 제작한 세계 최초 여성용 손목시계 컬렉션이라 의미가 더 깊다. 36.5X28.45mm의 균형감 있는 아름다운 타원형 케이스가 시그너처이며, 537/3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이번 컬렉션은 이 워치에 민트 컬러를 더했는데, 1백1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브리올레트 컷 다이아몬드로 크라운을 완성하고 1백21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천연 화이트 머더오브펄 소재 골드 다이얼이 인상적이다. 아라비아숫자 인디케이터와 스트랩 모두 민트 컬러로 완성해 산뜻한 봄의 느낌을 선사한다. 문의 www.breguet.com

FINE WHITE

위블로에서 순백의 아름다움을 연상시키는 '스피릿 오브 빅뱅 킹골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워치'를 제안한다. 새틴 마감 및 폴리시드 18K 킹골드로 완성한 32mm 케이스에 베젤을 따라 흐르듯 세심하게 세팅한 44개 다이아몬드가 눈부신 광채를 발산한다. 여기에 화이트 다이얼과 스트랩이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어우러진다. HUB112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하고, 4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100m 방수 성능을 자랑한다. 4천만원대. 문의 02-3438-6031

꽃의 시간

보는 재미와 착용하는 재미를 선사하는 반클리프 아펠의 장기, 시크릿 워치를 소개한다. 따스한 봄이 온 것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비주얼로 메종의 장인들이 만발한 꽃에서 영감받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엮어 제작했다. 중앙의 네 송이 플라워가 열리면 시계로 변모하며, 다이얼에는 다이아몬드로 가득 채워 꽃술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 시계를 닫으면 훌륭한 하이 주얼리 피스 뱅글로 연출 가능하다. 18K 옐로 골드와 총 1.4캐럿 다이아몬드 62개를 세팅해 완성했다.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문의 1877-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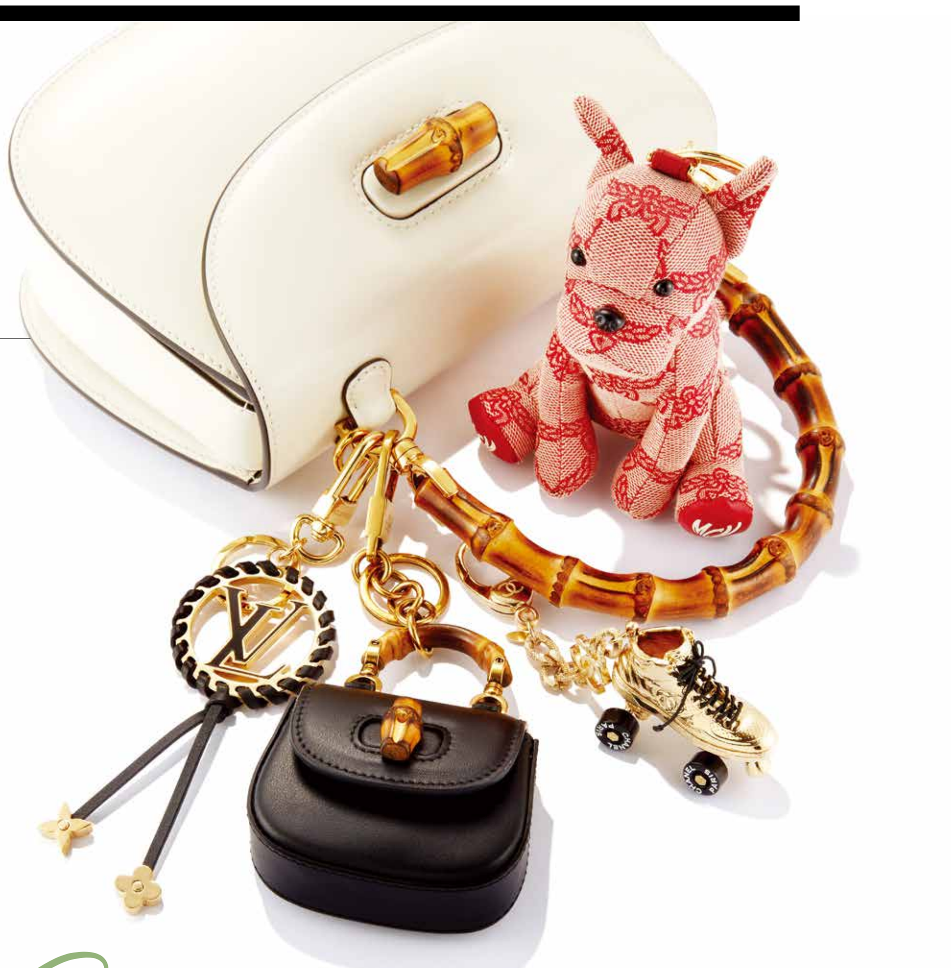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LOUISE & MARIA THORNFELDT ©DIOR

ROMANTIC TOUCH

디올 파인주얼리의 아이콘, 로즈 드 방(Rose des Vents) 컬렉션에서 신제품 '에뚜왈 드 방(Étoile des Vents)'을 선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해석한 컴퍼스 로즈는 12mm, 17mm, 25mm의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했다. 여기에 광채를 뽐내는 다이아몬드, 핑크 사파이어,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그린 컬러의 차보라이트 가닛을 가미해 더욱 새로운 무드를 느낄 수 있으며, 옐로·로즈·화이트 골드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디올 트라이벌 이어링부터 브레이슬릿, 세 줄의 소트와르까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280-0104



GOOD POINT

매력 넘치는 키 링으로 완성하는 유니크한 백 스타일링.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레토스 모노그램 패턴을 입은 불독 모티브의 힘멜 로레토스 자카드 프렌치 불독 참 37만원 **MCM.** 문의 02-540-1404. 송아지가죽 스트랩과 휠까지 디테일함을 살린 롤러스케이트 디자인의 키 링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아이코닉한 뱀부 백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한 뱀부 1947 키 체인 1백22만원대 **구찌.** 문의 02-3452-1521. LV 로고로 완성한 드림캐처 같은 디자인의 베리 백 참 & 키 홀더 68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화이트 컬러의 가죽 소재에 핸들과 버튼에 뱀부 소재로 포인트를 준 스몰 사이즈 뱀부 1947 톱 핸들 백 가격 미정 **구찌.** 문의 02-3452-1521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 GRAFF.COM

LAURENCE GRAFF SIGNATURE

GRAFF

for her Selection

산뜻하면서도 시크한 멋을 더할 스프링 캐주얼.

photographed by **oh hyeun sang**

가볍게 입기 좋은 트렌치 스타일의 크롭트 셔츠 재킷 1백만원대 **스포트막스.**

볼드한 프레임에 양옆 끝 금속 장식 포인트와 독특한 타원형 셰이프가 돋보이는 그립 오벌 선글라스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스티치 디테일을 가미한 데님 소재로 캐주얼한 감성을 부여한 샤넬 22 미니 핸드백. 35 X 37 X 7cm, 가격 미정 **샤넬.**

정면 톱 부분의 브랜드 로고가 포인트인 크로스 다이 캔버스 버킷 햇 19만9천원 **로렌 랄프 로렌.**

100% 송아지가죽으로 완성한 필로 발레리나 슈즈 1백만원대 **펜디.**

핑크와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로 우아한 감성을 부여한 마크리 클래시카 브레이슬릿 7백만원대 **부첼라티.**

로즈 골드에 로즈 쿼츠와 핑크 칼세도니 9.5캐럿, 총 0.08캐럿의 브라운 다이아몬드 8개로 완성한 누도 클래식 펜던트 가격 미정 **포멜라토.**

허리와 사이드에 컬러 블록으로 포인트를 준 플리츠 스커트 2백10만원대 **토즈.**

18K 5N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에 은은한 로즈빛 다이얼과 스트랩을 매치한 패트리모니 워치 4천3백만원 **바쉐론 콘스탄틴.**

18K 핑크 골드에 브라운 PVD를 믹스해 완성한 콰트로 클래식 L 후프 이어링 1천만원대 **부쉐론.**

파스텔 그린 컬러와 독특한 패턴이 산뜻한 무드를 선사하는 실크 스카프 40만원 **에르메스.**

부드러운 램 레더의 소재감을 잘 살린 오타비아 힐 1백18만원 **지안비토 로시.**

플래티넘에 아름다운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솔리테어 스타일의 다이아몬드 프로미스 링 가격 미정 **그라프.**

사다리꼴 플랩과 더블 핸들로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는 룸 백. 33X23X18cm,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카프 스킨 소재 밴드에 골드 피니시 브라스 소재의 로고 디테일을 더한 트리옹프 헤드 밴드 93만원 **셀린느 by 에디슬리먼.**

워싱 디테일이 멋스러움을 완성하는 오버사이즈 재킷 3백60만원 **디올.**

스타일리스트 **임희영**
에디터 **성정민**

샤넬 080-805-9628
그라프 02-2150-2320
스포트막스 02-511-3935
알렉산더 맥퀸 02-6105-2226
로렌 랄프 로렌 02-3479-1465
부첼라티 02-6905-3490
포멜라토 02-3143-9486
펜디 02-544-1925 **토즈** 02-3448-8233
부쉐론 02-3479-6028 **에르메스** 02-542-6622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지안비토 로시** 02-6905-3690 **로로피아나** 02-546-0615 **셀린느 by 에디슬리먼** 1577-8841 **디올** 02-3480-0104

리넨과 면 혼방 소재로 가볍고 시원한 폴로 스웨터
리노 코토네 피암마토 가격 미정 **브루넬로 쿠치넬리.**

메종 마르지엘라와 협업해 선보인
레더 프레임의 선글라스 49만원
젠틀몬스터.

코튼 소재로 캐주얼한
감성을 더해주는 베이스볼
햇 가격 미정 **발리.**

캔버스와 풀 그레인 가죽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플랩
백팩 라지. 44X37X16cm,
2백35만원 **리모와.**

인터로킹 G 디테일의
브라운 스웨이드 패브릭
레이스업 스니커즈
가격 미정 **구찌.**

모던하고 클래식한 십자가
디자인이 시크한 액세서리로
제격인 인사그니 펜던트
20만5천원 **스와로브스키.**

진한 올리브 그린 TPU
소재가 룩에 포인트를 부여할
슈레이스 스트랩 그린
파우치. 16X4X20cm,
가격 미정 **마르니.**

for him Selection

가볍게 떠나기 좋은 따스한 봄, 멋스러운 남성들의 아웃도어 캐주얼.

photographed by **oh hyeun sang**

링은 물론 펜던트로도
활용 가능한 컬러 디올
더블 링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빈티지 느낌의 팔라듐 피니시 메탈 버클 포인트의 B 볼루테 에코 레더 35mm 벨트 1백50만원 **벨루티.**

100% 소가죽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로퍼 1백20만원대 **토즈.**

실크 소재의 트윌리 스카프 34만원 **에르메스.**

블랙 세라믹 케이스가 고급스러운 남성미를
선사하는 루미노르 크로노 플라이백 2천3백만원대 **파네라이.**

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준, 볼륨감이 돋보이는 포스텐
링 5백60만원 **프레드.**

데님 느낌이 나는 100%
코튼 소재로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네이비 재킷
4백40만원 **로로피아나.**

스타일리스트 **임희영**
에디터 **성정민**

나들이 시 가볍게 크로스
보디 스타일로 함께하기
좋은 콤파스 플랩 크로스 백.
14X23X9cm, 47만원 **투미.**

토즈 02-3438-6008
투미 02-539-8160
리모와 02-546-3920
발리 02-3467-8935
구찌 02-3452-1921
스와로브스키 1522-9065
벨루티 02-536-1895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마르니 02-772-3233
에르메스 02-542-6622
파네라이 1670-1936
프레드 02-514-3721
로로피아나 02-6200-7799
브루넬로 쿠치넬리 1644-4490
젠틀몬스터 070-4128-2122

문화 예술로 도시 읽기: 아를(Arles) 사례

프로방스의 작은 도시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

우리가 흔히 '남프랑스'라 부르는 프로방스(Provence)는 웬만해선 사랑에 빠지지 않기가 힘들 정도로 매력이 흘러 넘치는 지역이다. 어떤 몹쓸 상처라도 포근히 보듬어줄 것만 같은 따사롭고 정겨운 빛의 고장, 예술가에게 영감의 원천이자 영혼의 안식처 같은 은혜로운 역할을 꾸준히 해온 건 비밀이 아니다. 더구나 자동차로 20~30분 정도만 달려도 저마다 다른 풍광과 분위기를 지닌 소도시가 끝도 없이 등장하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은 여행의 묘미를 한껏 살려준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각양각색의 매력을 지닌 여러 나라를 유유자적 돌아다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프로방스의 아기자기한 도시는 대부분 수차례 방문해도 질리지 않고 '최애'를 꼽기도 힘들지만 기나긴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 제일 먼저 들러보고 싶은 순위권에는 아를(Arles)이 최상단에 위치했다. 명예로운 유네스코 헤리티지 사이트여서가 아니라, 일종의 직업병일 수도 있겠지만, 5년 전쯤 찾았을 때 유의미한 변화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기에 육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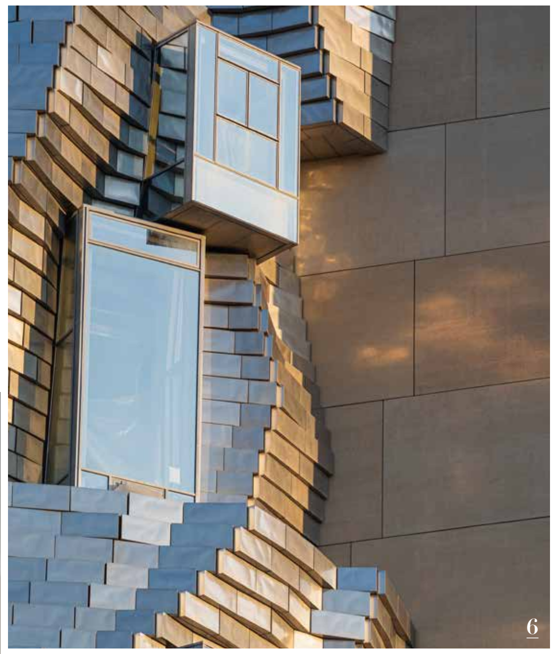
아를(Arles)은 지역의 시즌 행사이자 관광 상품으로 여전히 투우 경기가 열리는 원형경기장을 비롯해 로마 유적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고색창연한 소도시다. '책'으로만 접했다면 많은 이들이 반사적으로 '고흐'를 떠올리게 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빈센트 반 고흐가 고작 15개월 정도 머물렀지만 2백 점 넘는 회화를 남겼고 폴 고갱과의 에피소드로 후대에 엄청난 유명세를 얻은 지명이어서다. 그래서 프로방스의 팔색조 매력을 단기간에 섭렵해야 하는 수많은 여행자들은 고흐의 작품에 등장하는 포름 광장의 노란 카페에 들르거나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로마 유적을 훑는 '필수 루트'를 소화한 다음 이웃 도시로 떠나버리기 일쑤다. 예쁘장하고 사랑스러운 인상을 간직한 채 말이다. 필자도 첫 방문에 그럴 뻔했지만, 우연히 아를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뮈제 레아튀(Musée Réattu)에 들러 한 큐레이터와 얘기를 나누다가 살짝 놀라운 증언(?)을 접하게 됐다. 아를에 관심의 촉수가 날카롭게 뻗치게 된 계기였다.

#지역민에게 다가서는 루마 아를(LUMA Arles)

그의 말인즉슨, 과하게 표현하자면 예전에는 "저주받은 마을이 아닐까" 하는 자조적인 푸념과 냉소적 운명론이 지역 주민 사이에서 불거지곤 했던 도시가 바로 아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웃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풍요나 성장을 누리지 못한 정체된 곳이었다는 것이다. 투우와 고흐의 낭만으로 각인될 수도 있던 이미지에 다소 균열을 일으키는 발언이었고, 당시 아를에는 구겐하임 빌바오로 유명한 세기의 스타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hery)가 설계를 맡아 완공 전부터 화제가 된 새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던 터라 의아하기도 했다. 바로 '루마 아를(LUMA Arles)'이라고 불리는 복합 단지의 중심축으로 솟아오른 '더 타워(The Tower)'라는 건물이다. 프랭크 게리 특유의 강렬한 디자인 스타일을 반영한 이 9층짜리 건물은 멀리서 보면 기하학적으로 깔끔하게 구겨진 금속의 물결 같은 파사드가 인상적인데, 알고 보면 저마다 미묘하게 다른 크기로 정교하게 만든 11만5백 장의 스테인리스 스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현대미술을 비롯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품은 전시 공간은 물론 강당, 도서관, 아티스트 작업실,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당시에는 공사 중이었던 터라 출입이 제한적이었는데, 다시 루마 아를 단지를 찾아 명실공히 도시의 현대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이 건물(2021년 6월 오픈) 옥상에 올라가 보니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한눈에 들어왔다. 겉보기에는 원형경기장을 닮은 듯한 원통형 건물이 어째서 창의성을 불러모으는 '등대(light house)'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납득되는 순간이었다.

빛에 따라 다른 색조로 물드는 이 묘한 매력의 '더 타워'를 중심으로 한 루마 아를 단지 전체는 면적이 27에이커(약 109,265㎡)에 이르는 '파르크 데 아틀리에(Parc des Ateliers)'라 불리는데, 공원에 둘러싸인 철로와 공장 등이 있던 버려진 부지를 되살린 '재생 건축' 사례다(뉴욕에 기반한 건축 사무소인 셀도르프 아키텍츠와 조경 전문인 바스 스메츠가 맡았다). 이 대대적인 프로젝트의 배경에는 글로벌 제약 그룹의 상속자로 아를 근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마야 호프만(Maja Hoffmann)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녀가 2004년 설립한 스위스 취리히의 루마 재단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의 결실이 2021년 초여름에야 '완공'으로 대중에 드러난 것이다. 사실 프로젝트 진행 시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다. '돈질'로 아를의 모든 걸 바꾸려 하느냐는 관점이 부정론의 핵심이었다. 마뜩잖은 눈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긍정론이 우세한 듯하다. 놀랍도록 다학제적인 공간에 아이들이 노닐고 학습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다, 동시대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각종 기획전이 '무료 입장'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성 덕분이 아닐까.

1 버려진 부지를 활용한 도시 재생 사례인 루마 아를. Parc des Ateliers, LUMA Arles, France. © Iwan Baan **2** 루마 아를의 중심축이 되는 건물로 스타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 특유의 강렬한 디자인 스타일을 반영한 56미터 높이의 '더 타워(The Tower)'가 멀리 보인다. Parc des Ateliers, LUMA Arles, France. ©Adrian Deweerdt **3** 루마 아를 프로젝트를 이끈 마야 호프만(Maja Hoffmann)과 '더 타워'를 설계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 © Annie Leibovitz **4**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인 구정아(Koo Jeong-A)의 작품 'OooOoO', Parc des Ateliers, LUMA Arles, France. ©Adrian Deweerdt **5**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올라퓌르 엘리아손(Ólafur Eliasson)의 설치 작품 'Take your time', The Tower, Parc des Ateliers, LUMA Arles, France. **6** 루마 아를 '더 타워'의 파사드. Parc des Ateliers, LUMA Arles, France. ©Adrian Deweerdt



#마야 호프만이 시도하는 문화 예술 기획의 힘, 그 현주소

겨울철에 방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를은 여전히 삶의 속도가 꽤 느려 보였고, 어쩌면 첨단 시설에 익숙한 글로벌 여행자에게는 다소 불편한 도시이기도 했다. 고속철(TGV) 노선이 없는 기차역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앱으로 부를 수 있는 우버도 없었다. 사실 도심 자체가 워낙 작은 데다 쏠쏠한 볼거리도 많기에 슬슬 걸어 다니기에 전혀 나쁘지 않지만 말이다. 그렇게 구글 지도 앱을 켜놓은 채 열심히 다니다 보면, 마야 호프만이 자신의 고향처럼 여긴 이 도시에 물심양면으로 쏟아부은 노력에 의한 변화의 흔적을 여러모로 알아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못마땅한 시선이 존재하는 이유도 잘 뜯어보면 은근히 다방면에 걸쳐 그녀의 손길이 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루마 아를을 비롯해 이 도시의 자랑인 유서 깊은 사진 축제와 전문학교 후원, 동시대적 예술성을 반영한 흥미로운 호텔과 파인 다이닝 개발 등 실로 다채롭다. 느린 속도에 익숙한 아를 사람들로서는 꽤 강도 높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 같은 나그네에게는 여전히 고풍스러운 도시에 현대성이 요소요소 과하지 않은 양념처럼 뿌려져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호프만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세 호텔의 방을 합치면 91개 정도 되고, 이는 아를 전체에 있는 객실의 6%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 수치를 루마 아를 홈페이지에 굳이 공개해놓은 걸 보니 얼마나 시달렸으면, 하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7 영화감독이자 아티스트로 2019년 고인이 된 아녜스 바르다(Agnès Varda) 회고전 풍경. 아녜스는 10대 시절 벨기에에서 프랑스 남부 도시 세트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감자토피아'라는 설치 작업으로 시각예술가로 데뷔했다. **8** 현재 루마 아를의 '타워' 건물에서 진행 중인 미국 사진작가 다이앤 아버스(1923~1971) 전시 〈Diane Arbus: Constellation〉 설치 모습. All artworks © The Estate of Diane Arbus Collection Maja Hoffmann / LUMA Foundation Photo © Adrian Deweerdt **9, 10** 프로방스의 소도시에서는 드물게 고흐의 오리지널 작품을 상시 접할 수 있는 아를의 빈센트 반 고흐 재단 미술관(Fondation Vincent van Gogh Arles)의 기획전 〈L'Atelier du Sud〉 모습과 건물 외관. **11** 독특한 아름다움과 '가성비' 역시 빼어난 부티크 호텔 라를라탄(L'Artlatan)의 내부 모습. 마야 호프만의 주도로 15세기 저택을 개조했지만, 쿠바계 아티스트 호르헤 파르도(Jorge Pardo)의 손길 아래 시각적 황홀함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12, 13** 2022년 아를의 고택을 활용해 전시와 소통 공간으로 문을 연 아를의 이우환 미술관. 앤티크 딜러 집안 소유였던 16~18세기 맨션으로 이우환과 오랫동안 협업해온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손길이 이 공간에도 닿았다. **14** 아를 시내에 마야 호프만이 꾸린 아티스트 레지던시 공간(현재 예약제로 관람할 수 있다). **15** 1965년 프랑스 최초로 사진 전시를 개최한 아를의 대표적인 미술관인 뮈제 레아튀(Musée Réattu)의 안뜰. ※ 5, 7, 9~15 Photo by 고성연

#아를의 도시 풍경에 영감을 더해주는 요소

아마도 많은 이들이 가장 반길 만한 변화는 건축, 디자인, 예술, 공연, 과학 등 한 단어로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다면적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루마 아를의 존재와 더불어 '고흐'를 대중에 돌려준(?) 점일 것이다. 아를에는 반 고흐 재단 미술관이 있는데, 사실 고흐가 스쳐갔던 프로방스와 파리 근교의 오베르쉬르우아즈 같은 소도시의 기관이 그렇듯 작가의 원작을 소장하고 있지는 않다. '아를의 붉은 포도밭'이라는 1점의 작품만 판매한 채 요절한 그의 안타까운 커리어를 생각하면 '웃프지만' 말이다. 하나 이는 아를의 사정일 뿐 관람객은 왜 고흐 미술관에서 고흐 작품을 잘 볼 수 없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기 마련이었다(가끔 고흐의 드로잉 전시 같은 행사 가 있기는 했다고 한다). 부친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아 반 고흐 재단을 맡은 마야 호프만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 미술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다른 기관 혹은 컬렉터의 소장품 대여나 기획전 등을 통해 대중이 고흐를 늘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멀지 않은 곳에는 역시 마야 호프만과 연이 있는 아티스트들을 위한 영감 넘치는 레지던시 공간이 있는 건물도 자리한다.

5년 전의 아를 방문에서 맞닥뜨린 또 하나의 반가운 발견은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의 미술관 공사 현장이었다. 이우환과 프랑스의 인연은 꽤 오래 이어져왔다. 2008년부터 세계적인 현대미술가들을 초대해 궁과 정원에서 전시를 펼치며 역사적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는 '베르사유' 프로젝트에도 초대된 바 있는데(2014년), 그가 16~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를의 고택을 자신의 미술관(Lee Ufan Arles)이 들어설 공간으로 택한 것이다. 나오시마와 부산에 있는 이우환의 미술관에 가봤다면 전시 구성 자체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수백 년 된 천장을 품은 공간과 '시간성'과 연결된 그의 절제미 담긴 작품의 만남은 또 다른 앙상블을 자아낸다. 일단 들어서면 훨씬 더 넓고 우아한 이 미술관은 아티스트들의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도 쓰일 예정이라니, 아를에는 과거를 잇고 현재와 소통하는 의미 있는 역동성이 더 새롭게 솟아날 듯하다. 글 **고성연**(아를 현지 취재)

1 에디 마티네즈(Eddie Martinez)는 작품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작가다. 거장의 작품부터 대중문화, 일상까지 주변 모든 것을 이용해 작품을 탐구한다. 2 서울 마곡동의 문화 예술 공간 스페이스K 서울에서 지난 3월 중순 막을 올린 에디 마티네즈 개인전 〈투 비 컨티뉴드(To Be Continued)〉. 작가의 대형 신작부터 2005년부터 꾸준히 작품에 등장시킨 블록헤드(Blockhead)나 꽃병을 다양하게 그려 넣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 3 에디 마티네즈의 작품 블록헤드 탑. 'BH Stack #32'(2019), Oil, spray paint, collage and push pins on canvas_101.6 x 76.2cm. 블록헤드를 쌓아 올려 그리는 이 시리즈는 격자무늬로 구획화한 블록헤드로 캔버스 전체를 채우고,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공간을 표현하는 존재로 활용했다. 4 작가의 철학을 대형 화면에 반영한 작품이 전시 공간을 압도한다. '은하계 같은 풍경-로지아(Loggia)에서 바라보다(Super Galactic Loggia Whiteout)'(2023), 304.8 x 670.5cm in 2 panels. ※ 1~4 이미지 제공_스페이스K 서울

Life goes on and on

에디 마티네즈(Eddie Martinez)_스페이스K 서울

40년 가까이 펜과 종이를 들고 다니며 일상의 모든 순간에 드로잉을 해왔던 에디 마티네즈(Eddie Martinez, b. 1977). 결국 그가 그린 드로잉이 회화가 되고 조각이 되기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어린 시절부터 거리에 낙서화를 그리며 성장한 작가는 미술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피티와는 또 다른 아름다운 화폭을 만들어내며 현대미술 컬렉터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실을 비판하기보다 '일상을 더 사랑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긴 듯한 그의 작품은 모든 경계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자유로우면서도 살아 있는 듯 생동감이 넘친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그가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개인전이 열리는 서울을 방문했다.

'행복을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이다'라는 영국 아티스트 뱅크시의 문장이 무척 어울리는 에디 마티네즈(Eddie Martinez)의 작품에는 그를 행복하게 하는 일상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를 찾길 바랍니다"라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피티와 회화를 결합한 듯한 에디 마티네즈의 작품은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생겨나는 특유의 에너지가 마치 생명체처럼 숨 쉬는 것 같다. 뉴욕 브루클린의 거리에 낙서화를 그리며 어린 시절을 보낸 만큼, 대담한 드로잉과 과감한 색채가 그의 작품이 지닌 특징이다. 길거리 미술의 거친 면은 그가 추구하는 미술사 전통과 만나면서 부드럽고 우아하고 즐거운 사물의 풍경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인지 이해하기 쉽고, 보는 순간 직관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그의 전속 갤러리는 네 곳이다(영국의 티모시 테일러(Timothy Taylor), 미국의 미첼이네즈 네시(Mitchell-Innes Nash), 독일의 막스 헤츨러(Max Hetzler), 미국의 블룸(Blum)). 최근 미술관에서 전시를 자주 열고 있기도 하다. 2018년 뉴욕 브롱크스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 데 이어 이듬해인 2019년 디트로이트 현대미술관과 상하이 유즈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이 열렸고, 지난 3월 중순 서울의 스페이스K 서울에서 개인전 〈투 비 컨티뉴드(To Be Continued)〉(6월 16일까지)가 막을 올렸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탈리아에 둘러싸인 내륙국인 산마리노공화국 전시관의 대표 작가로 선정되어 전시할 예정이라고도 하니 그의 기세가 폭발적이다.

자유로운 드로잉이 꿈꾸는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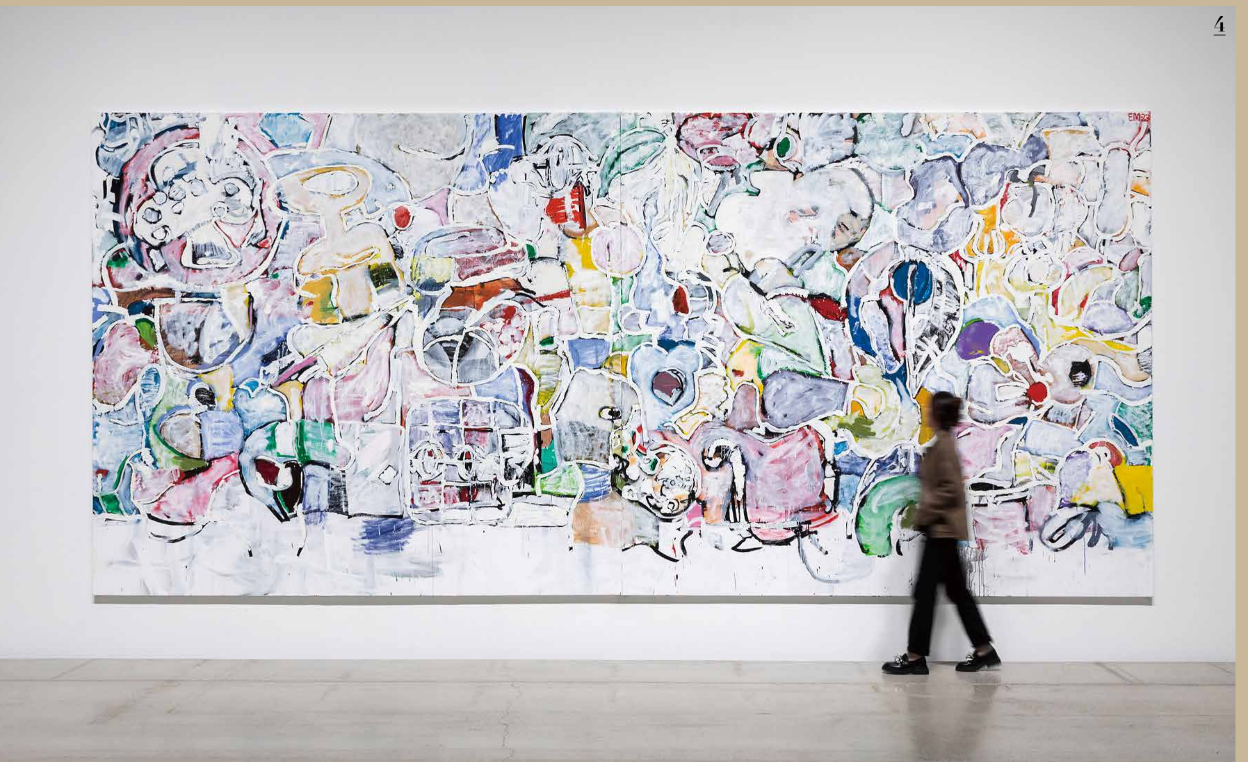
잠시 앉아 있을 때조차 낙서처럼 뭔가를 계속 끄적이고 그려대는(기자 간담회를 할 때도 드로잉을 했다) 에디 마티네즈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상의 소재'와 '드로잉'이다. "드로잉은 회화와 조각,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작업의 원동력입니다. 30년, 35년, 어쩌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삶에서 변함없이 존재했고, 드로잉하는 것은 일종의 도피처로 주변 환경 속에서 나와 연결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해오던 것이자 주변 환경에서 항상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 것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설명처럼 '드로잉'은 그에게 작품의 시작점이다. 검정 테두리에 다양한 사물의 형태와 색채가 뒤엉키면서 기분 좋은 에너지가 솟구친다.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화면 구성 덕분에 더 동적이다. 그는 수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는 작품마다 각각의 '스토리라인'을 계획하고 창작을 할까? "특별히 의도된 스토리라인보다는 작품 자체에 역사가 있기에 그것으로 시각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각적 내러티브는 결국 추상화 같은 궁금증을 남긴다. 드로잉한 뒤 이미지를 겹치고 과장하거나, 화이트 아웃 기법으로 다시 이미지를 지우거나

드로잉을 확대해 캔버스에 실크스크린으로 인쇄한 뒤 그 위에 다시 채색하며, 고전적 형식의 회화와 자유로운 드로잉의 속도감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해방감이 느껴지면서도 존재에 대한 사유를 하게 된다. 꽃, 화분, 테니스 공, 블록헤드(blockhead) 같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다양한 존재가 계속 반복되기도 하는데, 미묘하게 달라 보이다가 결국은 캔버스 안에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그런 동일한 모티브들이 그에게 어떤 변화로 다가오는지, 결국은 대상에서 해방될 것 같다고 에디 마티네즈에게 질문했더니 그는 이런 답변을 보내왔다.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어떤 면에서 자유를 준다는 데 동의합니다. 반복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런 반복을 통해 더 쉽게 이미지를 가지고 놀 수 있고 더 추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울 때 드러나는 존재

에디 마티네즈는 수십 년에 걸쳐 나비, 화분, 테니스 공 같은 일상에서 영감받은 소재를 반복적으로 그리며 '일상적 경험의 모방'이라는 구성 원칙에 따른다고 한다(예컨대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꽃병은 2004년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에서 '평범한 일상'은 우주가 되기도, 만다라가 되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신작 '은하계 같은 풍경-로지아(Loggia)에서 바라보다'는 전시 공간을 압도하는데, 자세히 보면 귀여운 강아지가 화면 시작점에 흐릿하게 보인다. 그의 반려견 '프란시스'가 죽던 날 시작한 이 회화 작품은 마치 하얀 세상에 갇힌 것 같다. 흰 페인트로 화려한 색채의 그림을 덮었고 나뭇잎, 버섯, 꽃, 눈 등이 화면 안에 뒤섞여 있다. 단순히 무언가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 보려고 한다는 작가는 동양철학과 불교에 심취해 있고, 1개월가량 만들고는 바로 지워버리는 티베트의 '모래 만다라' 수행도 좋아한다. 마치 조각처럼 보이는 그의 작품 '만다라(불교와 힌두교에서 우주의 진리를 표현하는 그림)'를 보면, 작가의 오랜 사유와 수행자와 같은 철학이 느껴지기도 한다. "저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튜디오 밖에서도 계속되는 삶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에 완성은 없죠. 그러니까 계속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극복했던 순간마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요즘엔 '감사함'을 느낀다는 작가의 일상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등교 준비를 시킵니다. 가끔은 테니스를 치거나 맨해튼에 갑니다. 보통 오후 1시가 되면 스튜디오에 도착합니다. 일하다가 저녁엔 집에 가죠. 이를 계속 반복합니다." 글 **김수진**(프리랜스 에디터, 디블렌트 CD)



스티븐 해링턴(Steven Harrington)_APMA

멈추지 않는 세계

스티븐 해링턴(Steven Harrington, b. 1979)의 작품을 처음 접한 건 2020년 어느 갤러리의 전시에서였다. 다른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처음 본 순간을 떠올리기 어려운 데 비해 스티븐 해링턴의 작품은 첫인상이 뇌리에 또렷이 남아 있었다. 당시는 단체전이라 그의 작품 세계까지는 깊이 알 수 없었으나, 작품의 색감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동감, 사람보다 큰 캐릭터 조각이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스티븐 해링턴의 작품을 좀 더 깊고 넓게 탐구할 수 있는 전시가 7월 14일까지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이다.

카를 융은 '색은 사람의 무의식적 정서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미학적 요소를 넘어, 색은 개인의 심리 상태와 감정을 반영하고 영향을 준다. 4년 전 본 스티븐 해링턴(Steven Harrington)의 작품이 기억에 오래 남은 것도 그의 작품이 발산하는, 다채로우면서 일관된 색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스티븐 해링턴은 '사이키델릭 팝 아티스트'로 분류된다. 환각을 일으킨다는 '사이키델릭'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처럼 그의 작품에서는 경쾌하고 약간은 흥분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에게 색은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색상을 일상적인 사물과 자연에 접목해 작품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재해석하고 주변을 색다르게 바라보게 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의 햇살 속으로

스티븐 해링턴의 작품 세계는 그가 나고 자란 캘리포니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2012년 독일 매거진 〈친구의 친구(Freunde von Freunden)〉와의 인터뷰를 보면, 그의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캘리포니아 바이브'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아름다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씨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작가 스스로도 추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색상을 사용했다지만, 환경이 작품에 끼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다. 어릴 적부터 그는 손에서 그림 도구를 놓지 않았으나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유치원 시절 내내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새 크레파스가 연필로, 붓으로 발전했고, 대학에서는 실크스크린, 목탄, 조각, 판화, 스케이트보드 디자인 등에 몰두했습니다. 멕시코계 어머니와 아일랜드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자랐으며, 히스패닉 예술과 문화를 어디서든 접할 수 있었어요. 음악, 예술, 음식을 좋아하는 부모님과 가족 속에서 자란 것은 큰 행운이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판화 작업으로 시작한 그의 초창기 작품을 몇몇 볼 수 있는데, 최근 작업보다 덜 단순하고 톤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결과물도 좋아하지만 과정이 실험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단순화를 위해 일부러 검은 페인트로 윤곽을 그리고 최소한의 색상 팔레트를 사용했어요. 이전 작품과 확연히 달라졌고, 평면적이고 그래픽적인의 스타일의 그림을 즐겨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해링턴 작품의 시그너처 캐릭터는 '멜로'와 '룰루'다. '멜로'란 이름은 2013년에 실크스크린 작품의 타이틀로 처음 등장했다. 캐릭터로서의 멜로가 탄생한 건 2015년이다. 그는 인종, 나이, 성별에서 자유롭고 전 세계 누구와든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했고, 지금의 멜로를 만들었다(그럼에도 그는 인터뷰에서 멜로를 'he', 룰루를 'she'로 표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멜로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위한 일종의 상징이 되었고 페인팅, 드로잉, 조각, 브랜드 협업 작업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됐다. 자신이 완성한 그림에 멜로가 물감을 덧칠한다는 콘셉트의 몇몇 작품('엉망으로 만들다'(2019) 외)에서 알 수 있듯 그에게도 '멜로'는 단순히 그림 속 캐릭터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제 생각에 멜로는 매우 자기 인식이 뛰어나, 확신이 서지 않은 프로젝트에도 자신이 어떻게 언제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멜로와 함께 다니는 야자수 캐릭터 룰루는 멜로보다 더 오래전에 등장했다. "2009년 처음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프랑스 친구가 고속도로에 늘어선 큰 야자수가 진짜라는 것을 신기해하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나고 자란 저는, 제가 그동안 야자수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룰루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서 '마법'을 보라는 단순한 상기에서 시작됐고, 시간이 흐르며 멜로의 든든한 조력자로 성장했다.

삶의 균형을 찾는 여정

귀엽고 발랄한 작품 분위기와 달리 사실 스티븐 해링턴이 작품으로 말하려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코로나19 시기에 그린 '꽃향기를 맡기 위해 멈춰보세요'는 일상의 소중함과 현재를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시사 연작'(2022~2023) 같은 작품에서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균형을 찾아야 해', '여행이 필요해', '자기반성 연작'이라는 제목처럼 자신의 불안을 작품에 반영하기도 한다. 초기 작업에서부터 등장한 음양 기호에서 볼 수 있듯 '균형'은 작품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는 그림 그리는 행위로 스스로를 치유한다. 수년 전 불안에 빠졌던 그는 그리는 과정이 명상과 비슷하다고 느꼈고, 압박감과 불안, 걱정이 삶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유쾌한 그림을 그리면서 내면의 불안을 가볍게 다루게 된 것이다. "지금은 그림 그리는 것이 속도를 늦추고 그저 반성하는 개인적 시간이 되었어요. 그 반성은 종종 일종의 무의식적인 꿈으로 변하고, 저는 그 과정이 좋아요. 이것을 '영적(spiritual)'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과 매우 비슷한 느낌입니다."

스티븐 해링턴은 오래전부터 브랜드들과 협업해왔다. 2012년에는 에이스 호텔, 미국 스니커 브랜드 제네릭 서플러스 등과 협업했고, 전시에서도 볼 수 있듯 최근에는 나이키, 유니클로, 이케아, 몰스킨, 크록스, 이니스프리 등 스펙트럼을 더욱 넓혔다. 협업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저는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을, 예술과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요. 이것이 예술을 하는 모든 창작자에게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프로젝트보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도전적이라고 생각되는 동시에 큰 만족감을 느껴요."

이번 전시에서 판화, 영상, 회화, 조각, 벽화, 협업 제품 등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듯, 그는 하나의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삶이 흐르는 것처럼 변화를 추구한다. 때로는 명확한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호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실험적일 수 있다. "제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작업의 테마와 메시지도 계속 진화합니다.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매번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그 전과 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고, 저는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 **김민서**

1 이번 전시를 위해 작가가 특별히 제작한 '들어가는 길'(2024)은 작가의 시그너처 캐릭터인 '멜로'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연출되었다. 2 제1전시장에서는 주요 회화 작품을 비롯해 사람보다 큰 3개의 멜로 조각이 그림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고 있다. 스티븐 해링턴은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멜로를 그리는 등 멜로와 작품을 분리하기도 한다. 3 3점의 대형 회화 연작 중 하나. 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된 코로나19 시기에 작품을 통해 세상을 여행하고자 했다. '떠나는 중(살아 있는)'(2021), 캔버스에 아크릴릭, 183 X 274.3cm. © Steven Harrington Artworks LLC 4 '스티븐 해링턴 X BAPE'(2023), 메디콤 토이 제작. © Steven Harrington Artworks LLC © Medicom Toy © BAPE 5 전시장 한쪽에는 그동안 스티븐 해링턴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완성한 운동화와 아트 토이 등이 진열되어 있다. 6 코로나19 시기를 보내는 동안 느낀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작품. '꽃향기를 맡기 위해 멈춰보세요 No. 5'(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213.4 X 170.2cm. © Steven Harrington Artworks LLC ※ 1~4 이미지 제공_APMA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아제 선라이트 링** 금빛 태양 모티브로 탄생한 선라이트 컬렉션 주얼리로 데코 팰리스(Décor Palace) 인그레이빙으로 완성한 18K 핑크 골드에 1백3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96캐럿을 세팅해 찬란한 태양 빛을 재현했다. 2천6백30만원. 문의 1668-1874 **샤넬 화인 주얼리 꼬메뜨 네크리스** 아름다운 별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꼬메뜨 컬렉션의 네크리스로 별똥별을 연상시키는 18K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로 이뤄진 모티브에 4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총 1.03캐럿을 세팅해 우아함을 부여했다. 1천9백만원대. 문의 080-805-9628 **디올 파인주얼리 로즈 셀레스트 링** 18K 옐로 골드에 화이트 골드 포인트를 더하고 한쪽에는 오닉스에 머더오브펄 소재로 별과 달 모티브를 표현했으며, 다른 한쪽에는 0.06캐럿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준 아이코닉한 링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타사키 코멧 플러스 이어링** 우주의 별과 혜성의 역동성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코멧 플러스 컬렉션의 이어링.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혜성의 꼬리를 표현하고 아코야 진주로 우아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61-5558 **프레드 포스텐 브레이슬릿** 태양계를 도는 행성과 그 궤도를 표현한 듯한 형태를 띠는 브레이슬릿으로 화이트 골드에 0.5캐럿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 1개와 0.2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 총 5.4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백96개를 세팅해 반짝임과 화려함을 더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포멜라토 이코니카 링**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을 지닌 링으로 볼드한 화이트 골드 밴드에 별을 포함한 다양한 문양의 홈이 있으며, 그 안에 총 0.8캐럿 다이아몬드 24개를 세팅해 특별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그라프 트라이벌 컬렉션 나이트 문 다이아몬드 뱅글** 태양이 지면 모습을 드러내는 달을 모티브로 모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중앙에는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양쪽의 반원과 밴드에까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화려하면서도 신비스러운 매력을 자아낸다. 6천8백31만원. 문의 02-2150-2320 **다미아니 마르게리타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와 총 0.62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데이지 플라워 6개를 조합해 십자가 형태로 조화롭게 디자인한 모던한 스타일의 네크리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쇼파드 해피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하늘의 해, 달, 별 모티브가 가운데서 자유로이 움직이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총 0.4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 50개를 세팅했다. 1천39만원. 문의 02-6905-3390 에디터 **성정민**

Eternal Universe

해, 달, 그리고 별 등 천체에 있는 신비스러운 것들은 오래전부터 주얼리 메종이 사랑해온 모티브다.
하늘에 있는 것들보다 더 반짝이는 주얼리 유니버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에르메스 켈리** 케이스에는 총 0.196캐럿의 43개 다이아몬드를, 스트랩에는 0.84캐럿의 2백21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은은한 광채를 발한다. 또 여성스러운 무드를 가미하는 로즈 골드 소재와 자개로 이루어진 다이얼로 우아한 멋을 배가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쇼메 조세핀 아그레뜨 메종의 아이코닉한 페어 셰이프를 매력적으로 연출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총 0.23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세팅해 사랑스러운 무드를 연출한다. 다이얼은 화이트 선 브러시드 마감으로 완성했으며, 12시 방향에 세팅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고정밀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9백만원대. 문의 02-3442-3359

부첼라티 마크리 메종의 인그레이빙 기법을 강조한 실크 같은 표면이 클래식한 멋을 부여하며,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한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24mm 케이스에 총 0.869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3천4백만원대. 문의 02-3440-5613

쇼파드 디아망트 오묘한 매력이 돋보이는 자개 다이얼에 1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워 마커로 마무리했다. 여기에 화려한 멋을 뽐내는 52개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가 다이얼을 정교하게 감싸며 우아한 분위기를 발산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90

피아제 익스트림리 레이디 수공으로 완성한 데코 팰리스 인그레이빙이 손목의 곡선에 따라 완벽하게 밀착되어 독보적인 영롱함을 발산하는 워치.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약 1.46캐럿의 24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세팅했다. 피아제 자체 제작 56P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9천만원.
문의 1668-1874

디올 타임피스 라 미니 디 마이 디올 스틸 다이아몬드 세트 하우스 고유의 새틴 패턴이 돋보이는 브레이슬릿과 다이얼이 심플하면서도 페미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스틸 다이얼에는 로고 디테일을 더했으며, 총 0.32캐럿의 40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19mm 스틸 케이스에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에디터 **윤자경**

어시스턴트 **신정인, 김보미**

shining Moment

손목에서 은은한 광채를
뽐내며 우아한 제스처를
선사해줄 주얼리 워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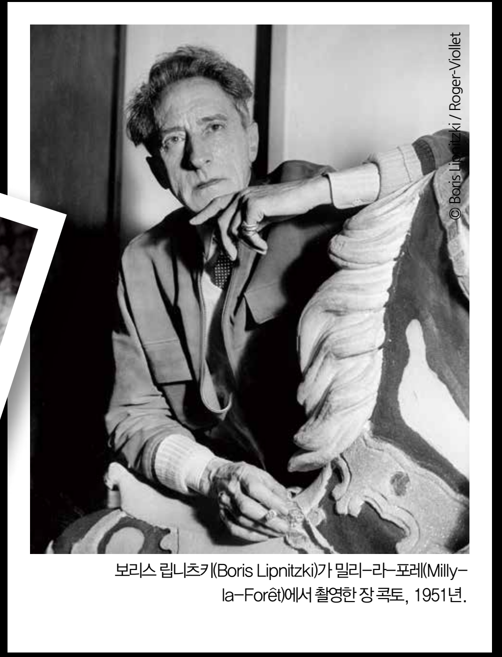
historical moment of Trinity

지난 한 세기 동안 사랑받아온 메종의 아이코닉한 컬렉션,
트리니티(Trinity). 그 1백 년의 시간을 기념하기 위한
메종 까르띠에의 열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7개 밴드로 제작되었던 트리니티 브레이슬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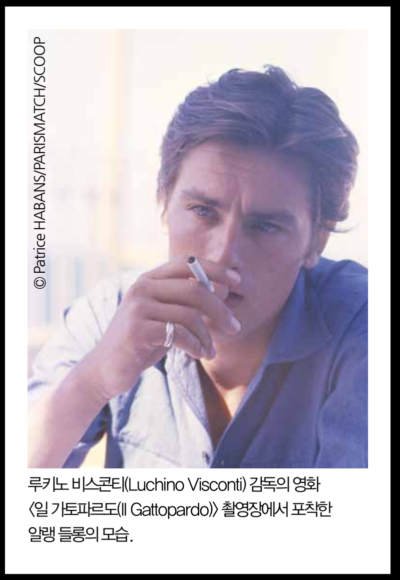
루이 까르띠에가 1924년 장 콕토를 위해 디자인한, 3개의 밴드로 이뤄진 최초의 트리니티 링. 핑크 골드, 옐로 골드, 플래티넘 밴드가 얽혀 있으며 각각 사랑과 우정, 신의를 상징한다.

트리니티 브레이슬릿을 착용한 재클린 비셋, 1976년.



보리스 립니츠키(Boris Lipnitzki)가 밀리-라-포레(Milly-la-Forêt)에서 촬영한 장 콕토, 1951년.

트리니티를 기념하기 위해 브레이슬릿, 이어링, 3개의 밴드 링, 3개의 밴드로 장식한 라이터로 재탄생한 트리니티 컬렉션, 1982년.



루키노 비스콘티(Luchino Visconti) 감독의 영화 〈일 가토파르도(Il Gattopardo)〉 촬영장에서 포착한 알랭 들롱의 모습.

메종에서 '레 머스트 드 까르띠에(Les Must de Cartier)'를 론칭했는데, 가치는 그대로지만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액세서리로 선보였다. 라이터, 펜, 장식 오브제를 3개의 링으로 장식했다. 사진은 1980년 레 머스트 드 까르띠에 멀티 프로덕트 광고.

1924년은 트리니티 링이 탄생한 해다. 루이 까르띠에는 당시 절친한 사이였던 시인이자 예술가, 장 콕토(Jean Cocteau)를 위해 이 링을 제작했다. 장 콕토는 당시 친구들과 나눠 낄 수 있는 우정 반지를 원했고, 루이 까르띠에는 고민 끝에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로즈 골드로 이뤄진 3개의 링이 하나로 엮여 있는 트리니티 링을 탄생시켰다. 어찌 보면 매우 클래식하고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이전까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디자인이기도 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컬러의 골드로 제작한 이 3개의 링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상징성을 더했다. 화이트 골드에는 '우정', 옐로 골드에는 '신의', 그리고 로즈 골드에는 '사랑'이란 의미를 부여했다. 그뿐 아니라 3이란 숫자는 까르띠에에도 매우 의미 깊은 숫자다. 우선 창립 당시 루이 까르띠에를 필두로 삼 형제가 함께 메종 까르띠에를 창립 및 완성했다. 또 까르띠에에는 템플 부티크라 불리는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스토어가 세 군데 있다. 첫째 루이 까르띠에의 상상력으로 파리에 처음 매장을 오픈했고, 둘째 피에르 까르띠에가 런던 매장을 오픈했으며, 자크 까르띠에는 뉴욕 매장을 오픈해 담당했다. 이렇듯 3이라는 숫자의 의미와 상징성을 지닌 링이기에 은유와 상징적인 글로 대표되는 '시'를 쓰는 장 콕토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었다. 그는 늘 자신의 왼손 새끼손가락에 1개도 아닌 2개를 착용했으며, 따라서 항상 6개의 링과 함께했다. 시인이자 아티스트이면서 트렌드세터로 통하던 장 콕토의 모습을 보고 많은 귀족과 셀럽이 트리니티 링을 찾기 시작했다. 미국 유명 배우 게리 쿠퍼부터 1950년대부터는 알랭 들롱, 로미 슈나이더, 그레이스 켈리까지 트리니티 링을 사랑했다. 그들이 트리니티 링을 착용한 사진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트리니티를 향한 사랑이 대중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그 사랑은 1백 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백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까르띠에에서는 이 트리니티 링을 계속 변화 및 발전시켜왔다. 동시에 브레이슬릿을 내놓았고 1973년에는 트리니티를 입힌 액세서리 '레 머스트 드 까르띠에'를 론칭하면서 트리니티 컬렉션을 공고히 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볼륨감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레터링을 추가하기도 하며,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변주로 트리니티 컬렉션을 사랑하는 이들을 즐겁게 했다. 2022년에는 사카이 창립자 아베 치토세(Chitose Abe)와 협업해 6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변화와 다양성을 지나오며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4년 올해, 까르띠에는 이를 기념해 또 다른 트리니티 컬렉션 피스들을 선보인다. 이로써 까르띠에 트리니티 컬렉션은 더욱 다양하고 특별해졌다.

트리니티 링을 착용하고 칸 영화제에 참석한 그레이스 켈리, 1955년.

1 플래티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블랙 세라믹 조합으로 완성한 트리니티 링. **2** 옐로 골드,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로 이뤄진 클래식 트리니티 링. **3** 사카이 디자이너, 아베 치토세의 트리니티 투 핑거 링.

출시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트리니티 컬렉션

까르띠에는 트리니티 출시 100주년을 기념하는 컬렉션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디자인적 고민을 했다. 기존 트리니티의 간결한 라인, 적절한 비율, 정밀한 형태와 상징성 등 모든 것을 잃지 않으면서 기념비적 피스에 걸맞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모양을 탄생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끝에 탄생한 것이 쿠션 형태의 새로운 트리니티 링이다. 네모난 형태의 링들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으면서도 미끄러지듯 올라타며 라운드 버전처럼 자연스럽게 손가락 위에 안착한다. 마치 잘 지은 건축물 같은 대범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트리니티의 상징성을 공고히 하고 디자인적 세련미를 놓치지 않았다. 이 쿠션 형태의 트리니티 링 역시 펜던트와 브레이슬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볼륨감이 더 큰 버전 등 다양한 변형을 통해 다채로운 피스로 선보인다. 이번 출시 100주년을 기념하는 피스로 XL 버전으로 선보이는 트리니티 컬렉션도 지나칠 수 없다. 더 대담해진 볼륨감과 크기로 여성은 물론 남성이 착용하기에도 적합해 성별에 관계없이 착용 가능한 트리니티의 보편성을 그대로 담아냈다.

이 특별한 컬렉션에 이어 출시되는 또 하나의 트리니티 컬렉션에는 모듈 디자인을 적용했다. 한 가지 링을 나무로 만든 장난감 퍼즐인 쿠미키(Kumiki)처럼 해체 및 결합 가능하도록 설계된 디자인으로 하나의 링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다. 마치 세 가지 맛이 섞인 막대 사탕처럼 세 가지 색으로 이뤄진 하나의 링을 커다란 밴드 형태로 착용할 수도 있고, 서로 얽힌 3개의 링을 분리해 숨어 있던 다이아몬드를 꺼내 화려한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 심플하면서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때론 펜시하고 우아한 느낌으로 때와 장소에 맞게 착용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피스다. 100주년을 맞이해 출시한 특별한 트리니티 컬렉션으로 트리니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선물 같은 해가 될 것이다.

1 출시 10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선보이는 쿠션 형태의 옐로·화이트·핑크 골드 소재 트리니티 링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화려함과 볼륨감을 부여한 신제품 트리니티 링. **2** 트리니티 출시 10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두 가지 다른 스타일의 트리니티 링. **3** 트리니티 출시 100주년을 기념해 올해 재출시한 트리니티 브레이슬릿 XL 사이즈. **4** 다양한 볼륨감의 트리니티 링과 브레이슬릿.

트리니티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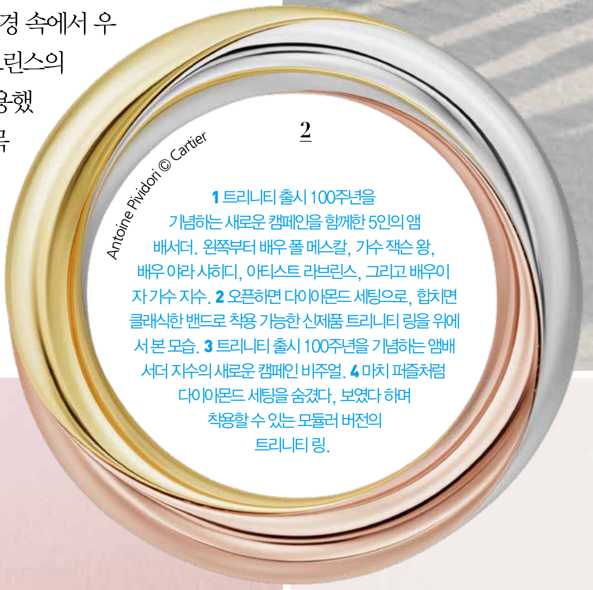
트리니티는 얽혀 있는 링을 통해 무한한 연결의 가능성을 추구해왔다. 올해 까르띠에는 트리니티 출시 10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보편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한다. 각자 특별한 재능을 지닌 5명의 앰배서더를 통해 단순한 주얼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 트리니티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까르띠에는 오래전부터 남녀간의 사랑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사이의 사랑 등 모든 사랑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 것인가(How Far Would You Go for Love)'라는 슬로건을 공표한 적이 있을 정도로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매우 진심이다. 루이 까르띠에 역시 오래전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우정, 신의를 지키기 위해 주얼리를 주문받기도 하고 제작하기도 했다. 트리니티 링 역시 장 콕토와의 우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모든 형태의 사랑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영상과 사진에 가득 담았다. 3개의 링으로 이뤄진 트리니티 링과 인연을 맺은 까르띠에 앰배서더 배우 폴 메스칼(Paul Mescal)과 야라 샤히디(Yara Shahidi), 가수 잭슨 왕(Jackson Wang), 라브린스(Labrinth), 그리고 한국의 배우이자 가수인 지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

캠페인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 위치한 예술가들의 도시 아를(Arles)의 흰 모래사막에서 촬영되었다. 아를은 빈센트 반 고흐가 여러 걸작을 창작한 도시로도 유명하다. 까르띠에는 무한한 연결성과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 광활한 대지와 바람, 그리고 흰 모래가 흩날리는 사막을 찾았고, 신비스럽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서 5명의 앰배서더는 트리니티의 세 가지 링처럼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때로는 조화를 이뤄 함께 걷거나 춤추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풍경 속에서 우아하고 당당하게 나아간다. 라브린스의 사운드트랙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으며, 각각가는 앰배서더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인간이 구축하는 다양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4월, 이 의미 깊고 아름다운 캠페인 영상과 비주얼을 만나볼 수 있다.

1

The Bardos © Carti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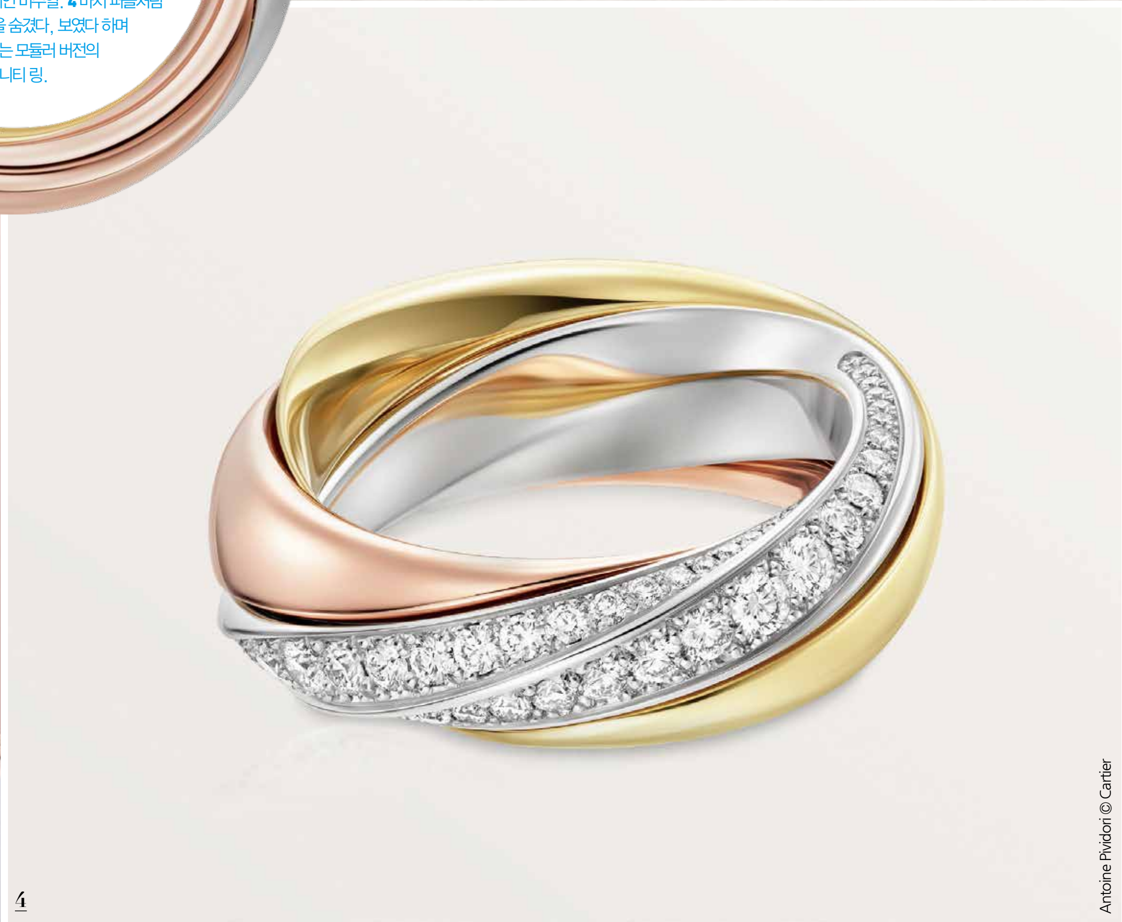
Antoine Pividori © Cartier

1 트리니티 출시 10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함께한 5인의 앰배서더. 왼쪽부터 배우 폴 메스칼, 가수 잭슨 왕, 배우 야라 사히디, 아티스트 라브린스, 그리고 배우이자 가수 지수. **2** 오픈하면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합치면 클래식한 밴드로 착용 가능한 신제품 트리니티 링을 위에서 본 모습. **3** 트리니티 출시 100주년을 기념하는 앰배서더 지수의 새로운 캠페인 비주얼. **4** 마치 퍼즐처럼 다이아몬드 세팅을 숨겼다, 보였다 하며 착용할 수 있는 모듈러 버전의 트리니티 링.

3

© Nathaniel Goldberg & Cartier

4



Antoine Pividori © Cartier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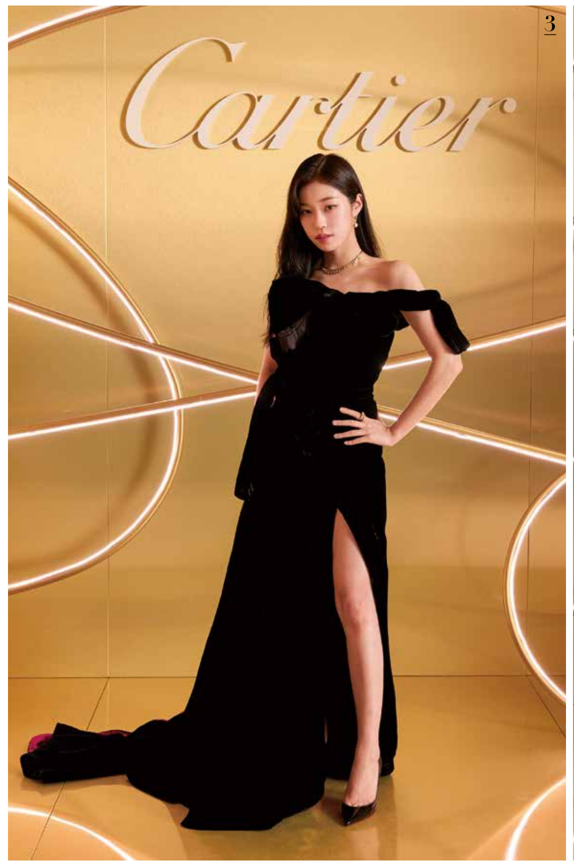
Antoine Pividori © Cartier

역사적으로 장식될 피날레

까르띠에의 상징 중 하나인 트리니티를 기념하는 것은 까르띠에에 보내는 찬사와도 같다. 그 때문에 까르띠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기로 했다. 20세기 초, 까르띠에가 자리 잡은 뉴욕, 런던, 파리에서 연이어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 파리의 뤼 드 라 페, 뉴욕의 5번가, 런던의 뉴 본드 스트리트는 루이·피에르·자크 까르띠에 삼 형제가 메종의 전설적인 부티크를 오픈한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초, 메종은 트리니티 앰배서더들과 세 차례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2월 1일 뉴욕 첼시 호텔(Chelsea Hotel)에서 배우 야라 샤히디와 함께한 이벤트를 시작으로 2월 5일 런던 레드브로크 홀(Ladbroke Hall)에서 배우 폴 메스칼과, 마지막으로 2월 7일 파리 프티 팔레(Petit Palais)에서 가수 지수, 잭슨 왕, 라브린스와 함께했다. 대미를 장식한 파리 이벤트가 개최된 파리의 상징적 공간인 프티 팔레는 트리니티를 기념하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었다. 작은 궁전이라는 의미의 프티 팔레는 1900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 세운 궁전으로 파리의 역사를 담은 공간이다. 역시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지었으며, 지금은 대형 전시장이자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그랑 팔레와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서 있다. 프티 팔레에 들어서는 순간 그 안의 이오니아 양식의 돌기둥과 돔 지붕이 트리니티 출시 100주년이라는 의미에 걸맞은 웅장한 느낌을 선사했다. 이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에는 트리니티 출시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제이크 질렌할(Jake Gyllenhaal), 바네사 커비(Vanessa Kirby), 라미 말렉(Rami Malek), 모니카 벨루치(Monica Bellucci), 이자벨 위페르(Isabelle Huppert), 엠마 코린(Emma Corrin), 한국의 여배우 노윤서 등 메종의 글로벌 앰배서더뿐 아니라 까르띠에 프렌즈까지 80명이 넘는 셀럽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댄스 그룹 라 오르드(La Horde)의 공연에 이어 가수 시아(Sia), 디플로(Diplo), 라브린스가 무대에 올라 트리니티를 기념하는 이벤트의 절정을 이뤘다. 파티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파리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정민**(파리 현지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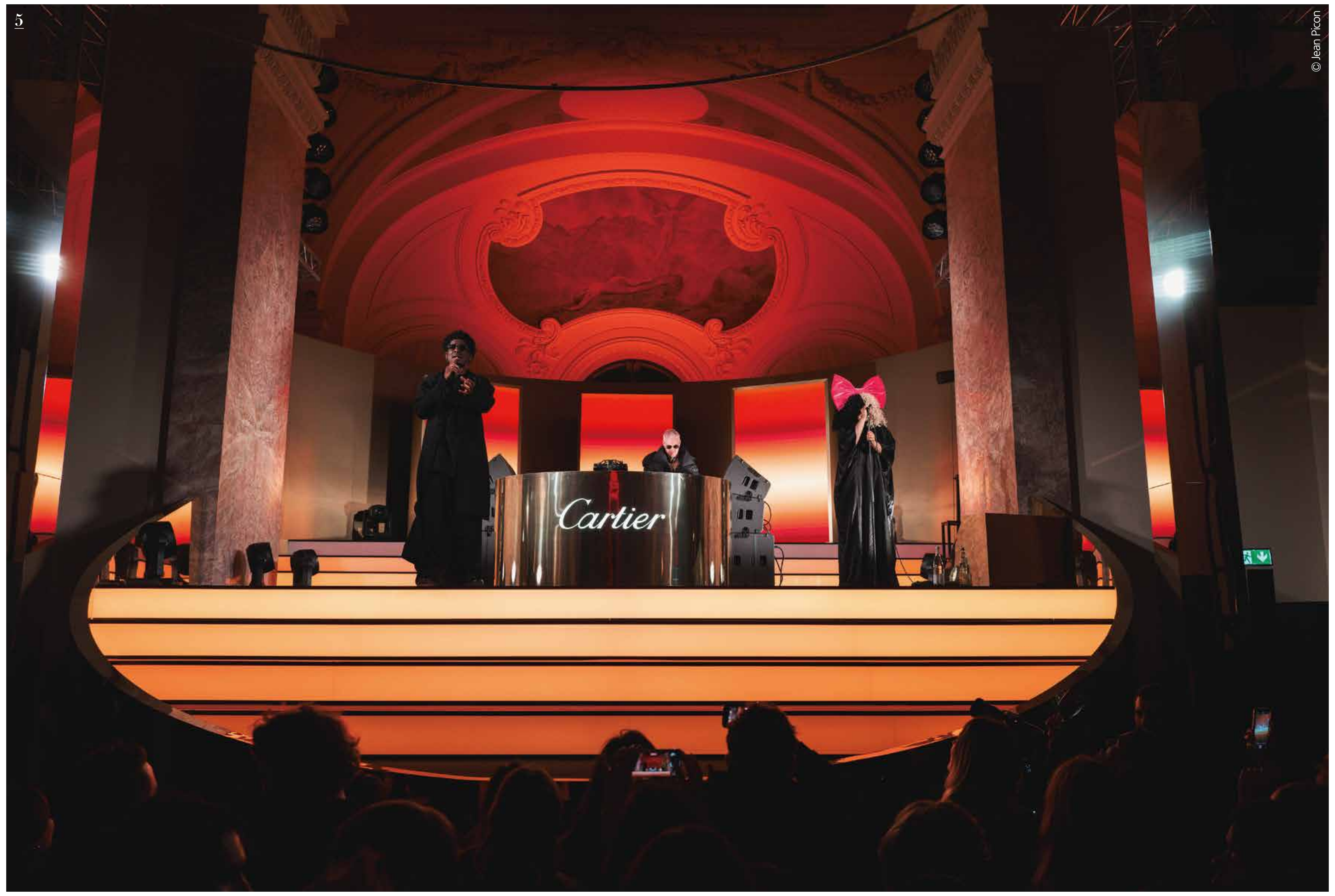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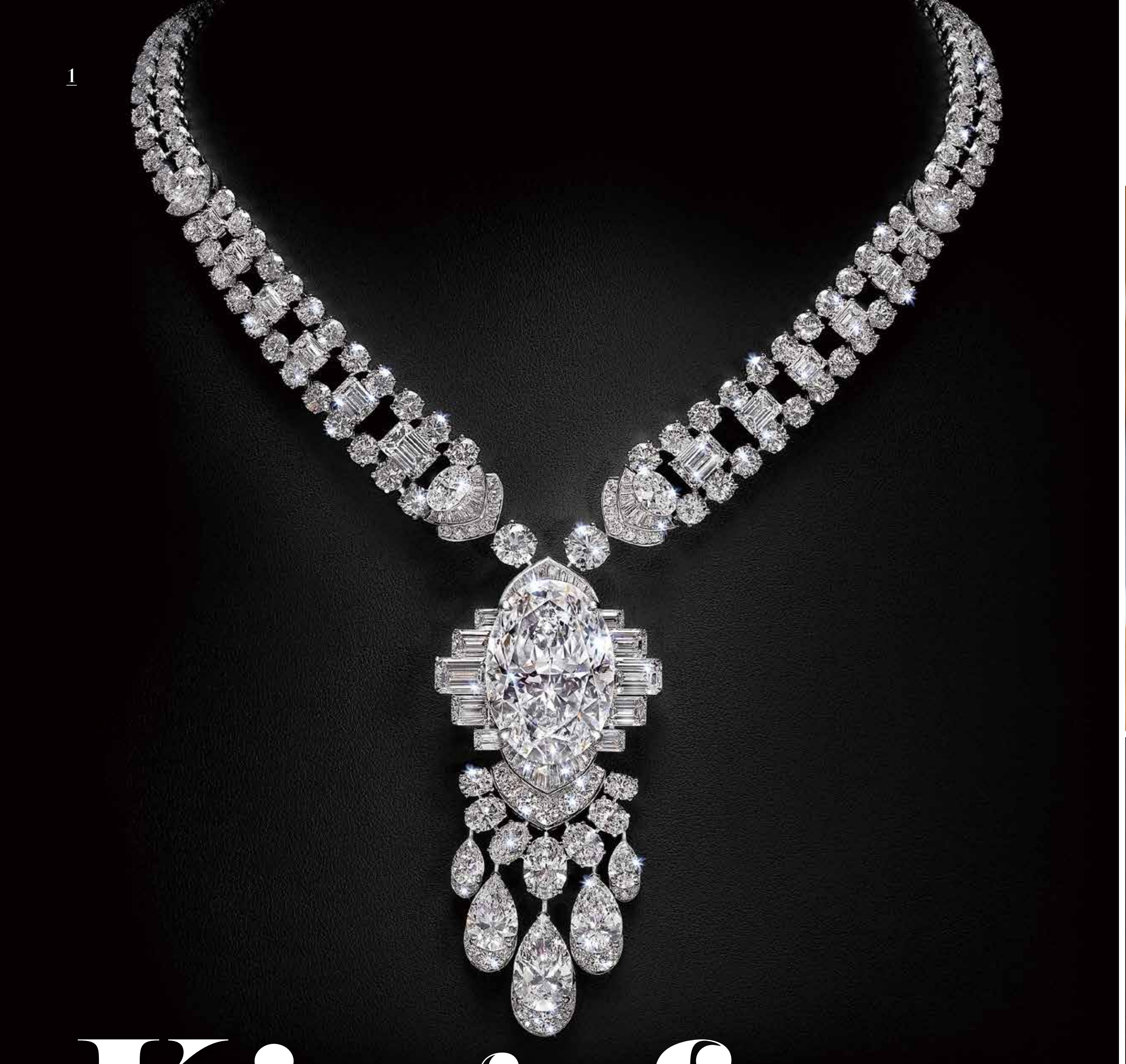
1 새롭게 선보이는 쿠션 형태의 옐로·화이트·핑크 골드 소재 트리니티 펜던트. **2** 클래식 링보다 볼륨감 있는 쿠션 형태의 옐로·화이트·핑크 골드까지, 3개 밴드로 완성해 과감함과 색다른 느낌을 부여하는 신제품 트리니티 링. **3** 파리에서 열린 트리니티 출시 100주년 이벤트에 참석한 한국의 여배우이자 까르띠에 앰배서더 노윤서. **4** 트리니티 출시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파리에서 열린 이벤트에 참석한 제이크 질렌할. **5** 파리 프티 팔레에서 진행된 트리니티 출시 100주년 기념 이벤트 현장. 가수 시아, 디플로, 라브린스가 축하 공연을 진행했다.

5



© Jean Picon

1



2

3

King of Diamonds

고품질의 다이아몬드와 스톤, 전통 깊은 주얼리 제작 노하우로 반세기가 넘는 시간 가장 아름다운 주얼리 컬렉션을 끊임없이 선보여온 그라프. 그 아름다운 역사와 여정에 관한 이야기.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경영 체제를 고수하는 브랜드들이 있다. 특히 모든 작업을 수공으로 진행해 디자인 및 제작에 장인 정신이 깃들어야 하는 제품일수록 더욱 그렇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대명사라 불리는 그라프(Graff)도 마찬가지. 그라프는 브랜드 창립부터 현재까지 하이 주얼리 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창립자 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패밀리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로렌스 그라프 OBE(대영제국 4등 훈장 수훈자)는 1960년 다이아몬드 전문 도매 기업을 창립한 후 1970년대 초 런던 나이츠브리지에 첫 그라프 매장을 연 창립자이며, 지금까지도 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회사 CEO인 아들 프랑수아와 함께 전략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진행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수아 그라프는 유년 시절부터 다이아몬드 사업에 매료되었으며, 사업 초기부터 아버지 로렌스에게서 다이아몬드와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결국 세계적인 다이아몬드와 저명한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스토리에 푹 빠져들었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로렌스 그라프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몸소 다이아몬드 사업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와 실력을 쌓아갔다. 그 후 경영 전문가 교육을 수료하고 1986년 정식으로 입사해 2004년에 그라프 다이아몬드 CEO가 되었다.
프랑수아 그라프의 삼촌이자 로렌스 그라프의 남동생 레이몬드 그라프는 본인 스스로가 주얼러인 동시에 런던의 하이 주얼리 공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을 총괄하고 있다. 레이몬드의 아들 엘리엇 그라프 또한 어린 시절부터 로렌스 그라프 회장에게 멘토링을 받으며 성장했고 현재는 머천다이징, 디자인, 그리고 하우스 오브 그라프의 주요 다이아몬드 매입 및 생산 공정을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그라프는 패밀리 비즈니스로 운영되면서 독자적인 디자인과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신속한 의사 결정 덕분에 기업 운영에 관련해 더 민첩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또 가문의 일원이 열정과 강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으므로 글로벌한 기업으로서 활동할 때 조직 전체에 동일한 열정과 책임감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듯 핵심 인물 4명의 확실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으로 그라프는 여전히 최고의 성과와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For The Best Diamond

그라프는 수년에 걸쳐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다뤄왔다. 신화와 역사가 깃든 수 세기 전 스톤을 비롯해 최근에 발견된 스톤은 대대로 전달되어 그라프만의 고유한 유산이 되었다. 1백 년 전 발견된 가장 거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이자 발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1천1백9캐럿 레세디 라 로나(Lesedi La Rona)의 발견으로 그라프는 다이아몬드 역사의 한 챕터를 장식했다. 압도적인 D 컬러와 탁월한 투명도를 인정받았으며, GIA에서 최고의 크기로 인정받은 것. 레세디 라 로나뿐 아니라 그라프가 인수한 다양한 컬러 다이아몬드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라프의 뛰어난 커팅 및 폴리싱 역사의 정수를 보여준다. 2008년 2백43.96캐럿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 컷에 D컬러와 결점이 제로인 FL(Flawless) 등급 다이아몬드 매그니피선스를 내놓았으며, 2009년에는 31.06캐럿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내추럴 팬시 딥 블루 다이아몬드인 비텔스바흐 그라프를 선보였다. 이 블루 다이아몬드는 내부에 아무런 결점이 없고 외부에 미세한 결점만 존재하는 IF(Internally Flawless) 등급을 받았다. 2010년에는 무려 1백18.08캐럿의 세계에서 가장 큰 스퀘어 에메랄드 컷 팬시 비비드 옐로 다이아몬드 들레르 선라이즈를, 같은 해에 또 한번 23.88캐럿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비드 핑크 IF 등급 다이아몬드 그라프 핑크를 만들어냈다. 2011년에는 디자인부터 커팅까지 고난도의 섬세한 공정이 필요한 하트 컷 다이아몬드, 그라프 스위트하트를 제작했는데, 무려 51.2캐럿에 달해 그라프의 놀라운 다이아몬드 제작 노하우와 기술력을 증명했다. 이는 그라프가 발굴, 감정, 디자인, 커팅, 폴리싱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완성한 역사적인 피스라 할 수 있다. 그라프는 이렇듯 다이아몬드뿐 아니라 퀄리티 높은 컬러 스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품격 있는 하이 주얼리를 탄생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장인의 정교함과 독창성에 대한 노하우를 집약한 워크숍이 있기 때문이다. 런던 메이페어(Mayfair)에 위치한 그라프 주얼리 워크숍은 유럽에서 가장 큰 워크숍이며, 최상의 시스템과 장인의 오랜 노하우, 전통적인 제작 방식의 결합 등 하이 주얼리 메종이 갖춰야 할 모든 요건을 갖췄다.

5

6

1 50캐럿 D 플로리스 오벌 다이아몬드와 1백 캐럿의 페어 셰이프, 에메랄드·오벌·라운드·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라프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2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라프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50캐럿 D 플로리스 오벌 다이아몬드. 3 그라프의 자산이자 하이 주얼리 제작의 핵심인 역사적인 다이아몬드 컬렉션. 4 그라프 버터플라이 실루엣 다이아몬드 스터드 이어링. 5 모델 리앤 반 롬페이와 함께한 버터플라이 컬렉션의 캠페인 비주얼. 6 틸다의 보우 컬렉션을 착용하고 포즈를 취한 모델 리앤 반 롬페이. 7 모델 리앤 반 롬페이, 시신 후앙과 함께한 시그니처 컬렉션의 캠페인. 8 그라프에서 선보이는 클래식하고 모던한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뱅글.

4

Most Beautiful Butterfly

그라프는 다양한 주얼리 컬렉션을 갖추고 있고, 각각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주얼리 수집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대표 컬렉션은 버터플라이, 와일드 플라워, 틸다의 보우,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트라이벌 컬렉션 등이며, 각각 아름다운 디자인적 모티브와 색을 지니고 있다. 그중 버터플라이 컬렉션은 눈부신 다이아몬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으로 가장 정교한 자연의 창조물인 나비의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움을 재현했다.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로 날갯짓하는 나비의 우아하고도 유려한 라인을 잘 표현했다. 그라프의 유서 깊은 모티브 중 하나인 나비는 하우스 역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수많은 주얼리와 타임피스에 영감을 선사했다. 그런 만큼 그라프 버터플라이 컬렉션 피스들은 실제 나비의 생동감을 그대로 재현한다. 이로써 그라프는 눈부신 광채와 생명력을 지닌 다이아몬드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부여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스톤임을 증명했다. 버터플라이 컬렉션은 매일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버터플라이 실루엣 컬렉션과 한 마리 혹은 세 마리 나비 모티브로 장식한 파베 버터플라이 컬렉션, 그리고 페어 셰이프 및 마키즈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는 심플한 실루엣으로 나비를 표현하고 멀티 셰이프 스톤이 주얼리를 감싸 눈부신 빛의 리본을 형성하는 클래식 버터플라이 컬렉션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버터플라이 워치를 선보이는데, 다이얼 주변을 장식한 춤추는 나비부터 우아한 시크릿 워치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타임피스들을 선보인다.

Unconditional Love, Tilda's Bow

그라프 대표 컬렉션 중 하나인 '틸다의 보우'는 창립자 로렌스 그라프의 손녀를 향한 사랑에서 영감받았다. 영원한 헌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 그리고 가족 간의 굳건한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 모티브를 사용했다. 리본이라는 상징을 모던하게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라프 디자이너들은 관습에서 벗어나 깊은 애정과 섬세함, 그리고 정성이 담긴 손길로 실크 리본을 매듭짓는 순간을 포착했다. 그 때문에 여느 리본 형태와 다르게 세련된 리본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 틸다의 보우는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선사한다. 유려한 움직임을 정교하게 구현해 마치 날아갈 듯 가벼운 느낌을 자아내며, 파베 다이아몬드로 생생히 그려낸 보우의 고리와 곡선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다. 또 마스터 장인이 세팅한 라운드·커스텀·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등 그라프의 커팅 기술력이 돋보이는 다양한 컷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황홀한 빛의 향연을 펼친다. 이렇게 완성된 틸다의 보우 링과 이어링,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등은 완벽하게 신체에 안착하며 동작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최대한 가벼운 실크 리본을 연상시키기 위해 리듬감에 초점을 맞춰 표현했으며,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작업이지만 그라프이기에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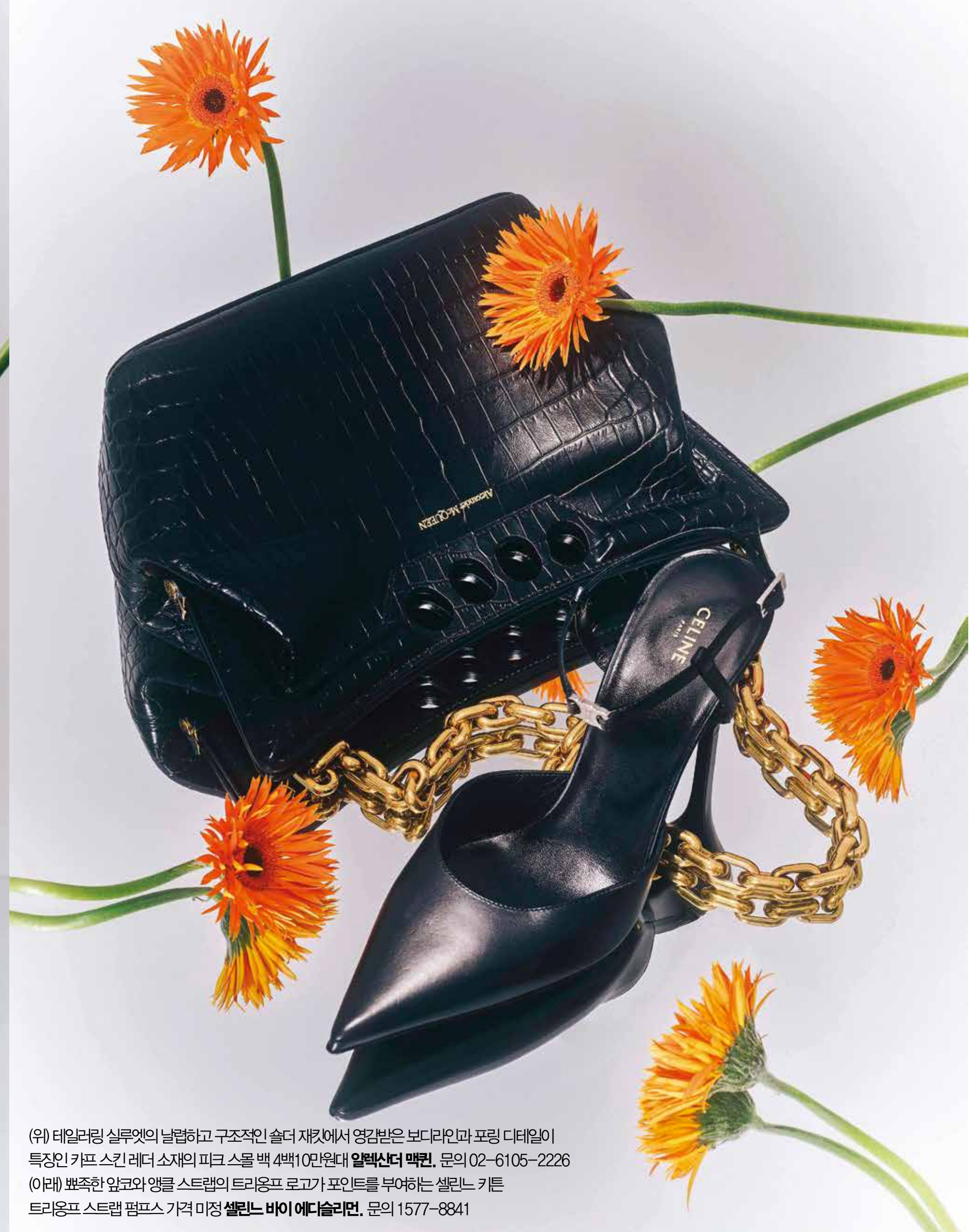
Complete Your Signature

그라프에서 또 한번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고유한 스타일을 완성할 새로운 시그니처 뱅글을 선보인다.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뱅글은 아시아에서만 출시하는 익스클루시브 제품이다. 클래식하고 모던하며 유려한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레이어링해 연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링을 통해 고유한 개성을 표현해준다.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옐로 골드 소재로 패싯이 돋보이는 깔끔하고 미니멀한 버전, 다이아몬드가 찬란하게 반짝이는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다이아몬드 커팅에 대한 로렌스 그라프의 타고난 감각과 하우스의 상징과도 같은 패싯 디테일에서 영감을 얻은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톤을 다뤄온 창립자의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
새로운 뱅글의 브랜드 캠페인은 그라프 하우스 최초로 여성과 남성 모델이 함께했다. 이 캠페인 비주얼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착용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 혁신과 디자인,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에 더더욱 빛을 더해줄 이 컬렉션은 깔끔한 골드 소재가 돋보이며, 뱅글을 포함해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디자인의 펜던트와 이어링, 그리고 링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디자인 디렉터 앤-에바 게프로이(Anne-Eva Geffroy)는 이번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이 그라프 다이아몬드의 대담하고도 정교한 패싯을 기념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다양한 스타일링과 레이어링을 통해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는 모던한 주얼리 컬렉션의 탄생을 자축했다. 그라프 뱅글 출시를 기념한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은 모델 리앤 반 롬페이(Rianne Van Rompaey), 시신 후앙(Shixin Huang)과 함께했다. 또 이번 캠페인은 전 〈보그〉 파리 에디터 출신인 엠마누엘 알트(Emmanuelle Alt)가 스타일링을, 미카엘 얀손(Mikael Jansson)이 촬영을 맡았다.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은 화이트 골드, 로즈 골드, 옐로 골드의 패싯으로 그라프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표현하듯, 모던하고 구조적이면서도 편안한 감각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통해 무수한 레이어링 스타일을 선사한다. 나만의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해줄 컬렉션을 만나보자.
문의 02-2150-2320 에디터 **성정민**

7

8

(위) 2024 S/S 프리 스프링 컬렉션의 슈즈로 스웨이드 소재에 에메랄드빛 라인스톤을 촘촘히 박아 블링블링한 스타일로 완성했다. 2백40만원 **로에베.** 문의 02-3479-1785 (아래) 터쿼이즈 컬러 램 스킨을 패딩 느낌으로 연출해 유니크한 디자인을 탄생시켰으며, 골드 컬러 트위스트 LV 록을 더해 아이코닉함을 부여한 GO-14 MM 백 9백34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위) 테일러링 실루엣의 날렵하고 구조적인 숄더 재킷에서 영감받은 보디라인과 포링 디테일이 특징인 카프 스킨 레더 소재의 피크 스몰 백 4백10만원대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105-2226 (아래) 뾰족한 앞코와 앵클 스트랩의 트리옹프 로고가 포인트를 부여하는 셀린느 키튼 트리옹프 스트랩 펌프스 가격 미정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먼.** 문의 1577-8841

Spring Mate

따스한 봄 날씨에 걸맞은 산뜻한 컬러와 디자인의 뉴 백 & 슈즈.

photographed by **yi ju hyuk**

2024 S/S 컬렉션 슈즈로 발등의 로고와 임브로이더리 디테일이 돋보이는 디웨이(Dway) 뮬 힐, 클래식하고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까나쥬 디테일이 인상적인 램 스킨 소재의 레이디 디올 백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280-0104

(왼쪽) 화이트 컬러의 부드러운 나파 가죽 소재 직사각형 디자인이 어깨에 메는 순간 멋스러운 룩을 연출해주는 브이 로고 소프트 백 4백38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2015-4655 (오른쪽) 2024 S/S 레디투웨어 컬렉션의 슈즈로 파스텔 스카이 블루 컬러의 램 스킨 소재를 활용해 컬러 포인트를 더한 하이 부츠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성정민**

어시스턴트 **김범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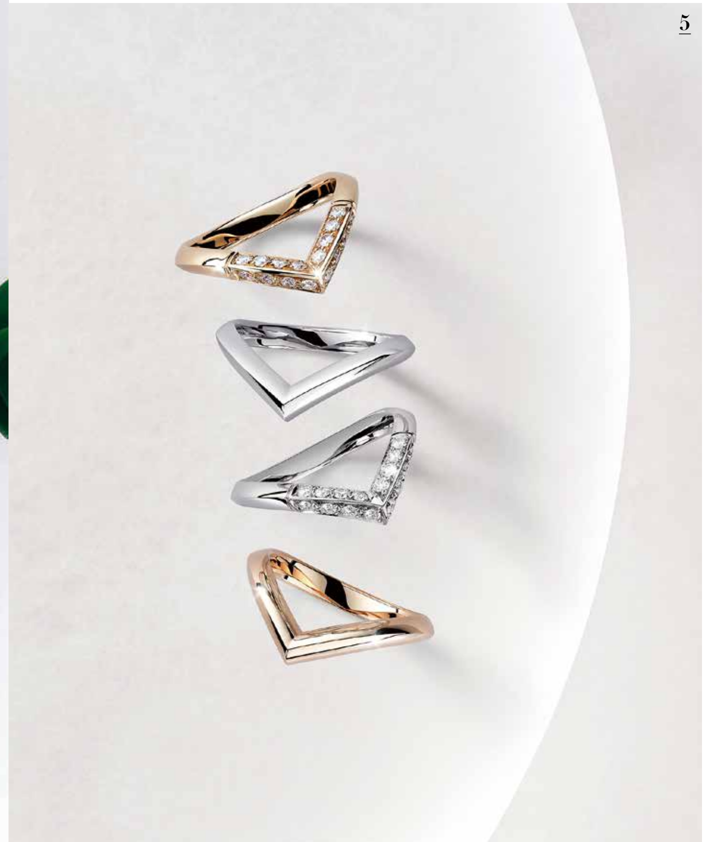
1

Brilliant Heritage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경이롭다. 루이 비통의 아이코닉한 모노그램을 담아 더욱 빛나는 LV 다이아몬드 컬렉션.

루이 비통에서 LV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선보이며 주얼리 메이킹의 새로운 여정을 그려나간다. 이번 컬렉션을 통해 다이아몬드가 지닌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기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맺는 특별한 유대에 경의를 표하는 데 의미를 두어 특별함을 배가했다. 루이 비통 워치 & 주얼리 아티스틱 디렉터 프란체스카 앰피시어트로프가 디자인을 완성하고, 상징적인 패턴 중 하나인 모노그램 플라워를 LV 모노그램 스타 컷 다이아몬드로 표현해 영원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LV 모노그램 스타 컷은 끝이 뾰족한 53개의 면을 지닌 다이아몬드 컷으로 1896년 조르주 루이 비통이 처음 디자인한 별 모양 모노그램을 표현한 것이다. 또 독보적인 광채를 담아내기 위해 전례 없는 윤곽과 대담하고 그래픽적인 컷으로 완성했다. 이번 컬렉션의 모든 아이템은 LV 모노그램 스타 컷뿐 아니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조화를 이뤄 더욱 눈부신 광채를 선사한다. 또 대담함 속 절제된 디자인의 유니섹스 밴드와 링, 스터드, 펜던트로 구성해 메종의 상징적인 미학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리고 플래티넘, 로즈 골드, 그리고 하프 파베 다이아몬드 링은 1920년대와 1930년대 가스통 루이 비통이 그의 가방을 장식했던 아르데코 스타일의 V 모티브를 연상시킨다. 또 다른 링에는 LV 모노그램 스타 컷 다이아몬드를 메인 스톤으로 세팅하거나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플래티넘 골드 전체를 완전히 뒤덮어 눈부신 광채를 발산한다. 또 하나 눈여겨볼 포인트는 바로 링의 베젤 부분. 루이 비통 주얼리 장인들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베젤에 모노그램 플라워를 더하고, 4개의 작은 V 모양 갈고리들이 이 특별한 다이아몬드의 곡선과 가장자리를 감싸도록 고안했다. 1888년 조르주 비통이 처음으로 완성한 다미에 패턴을 연상시키는 밴드 링은 반짝이는 바둑판 디자인으로 활기차고 그래픽적인 매력을 더하며 컬렉션을 우아하게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펜던트와 스터드는 브릴리언트 컷과 모노그램 플라워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의 완벽한 조화로 일상에서 착용하기에 제격이다. 독보적인 매력을 지닌 이 컬렉션은 단독으로, 혹은 다른 피스와 믹스 매치해 다양한 방법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다. 루이 비통은 최초로 LV 다이아몬드 인증서를 제공하며, 이 문서는 메종이 원석을 전달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신념을 보여준다. LV 다이아몬드를 메인 스톤으로 세팅한 모든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이 고유한 문서를 통해 각 다이아몬드의 무게, 색상, 순도 및 커팅 품질은 물론 다이아몬드를 채굴한 국가부터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과 다이아몬드를 가공한 공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루이 비통은 이러한 인증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럭셔리 분야 전용 플랫폼인 아우라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 이들이 보유한 현대 기술은 분산 저장 시스템을 적용해 위조 방지 데이터를 기록하고 발행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원석의 역사와 발견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에 다이아몬드의 내구성과 원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문의 02-3432-1854 에디터 **윤자경**

5



2 3 4

1 삶의 크고 작은 의미 있는 순간을 기념하는 다이아몬드의 힘을 찬미하는 LV 다이아몬드 컬렉션. **2** 총 1캐럿의 LV 모노그램 스타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래티넘 소재의 LV 다이아몬드 파베 더블 링. **3** 총 0.3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LV 다이아몬드 더블 펜던트. **4** 총 2캐럿의 LV 모노그램 스타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래티넘 소재의 LV 다이아몬드 파베 솔리테르. **5** 플래티넘과 로즈 골드 소재의 LV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

BAGS ON TOP

새로운 시즌, 그녀를 유혹하는
2024 뉴 잇 백 포트폴리오.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랩 스킨 및 니트 소재의 톱 6백96만원,
밴드 6백46만원, 스커트 1천3백26만원,
카프 스킨 소재의 오뜨아크루아 백
3천3백71만원 모두 **에르메스.**

레더 소재의 드레스 가격 미정,
스털링 실버 이어링 가격 미정,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부드러운
가죽 소재에 폴라드 인트레치오
수공 기법을 적용해 완성한 칼리메로
씨타 백 6백만원대 모두 **보테가 베네타.**

루시안 텍스처 리넨 헤링본 코트
5백20만원대, 실크 트위드 버즈아이
스웨터 베스트 1백80만원대, 셰본
텍스처 트윌 팬츠 2백40만원대,
RL888 박스 카프 스킨 톱 핸들 백
3백70만원대 모두 **랄프 로렌 컬렉션.**

버튼 및 슬릿 디테일의 그레이 싱글브레스트
캔버스 울 재킷 5백30만원, 구찌와
웹 디테일의 캐멀 캐시미어 실크 탱크 톱
2백15만원, 웹과 구찌 디테일의
그레이 캐시미어 니트 폴로 2백85만원,
벨트 및 포켓 디테일의 그레이 로 웨이스트
울 팬츠 3백30만원, 훅 클로저와
웹 숄더 스트랩 디테일의 로소 앙코라
레더 스몰 버킷 백 3백20만원,
메탈 스몰 이어링 1백9만원 모두 **구찌.**

코튼 소재의 셔츠 재킷
1백30만원대, 벨트 장식의
질레 1백30만원대, 코튼
플리츠스커트 2백10만원대,
카프 스킨의 디아이 리버스 백
3백30만원대 모두 **토즈.**

글리터드 코튼 & 울 트위드 패치워크
소재 재킷과 스커트, 화이트 컬러의
타이츠, 메탈 & 글라스 펄 &
스트라스 소재 이어링, 그레디언트
램 스킨 & 골드 메탈 소재 11.12 백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실크와 코튼 소재의 IKEDA
크루넥 스웨터와 스커트,
카프 스킨 소재의 LOOM L32
백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오버사이즈 트리옹프 느와르
레더 재킷, 크롭트 지퍼 후디 인
클래식 코튼 플리스, 앙콜뤼르
롱 로브 드레스, 폴리 트리옹프
소프트 인 블랙 서플 카프 스킨
모두 가격 미정 **셀린느 by 에디슬리먼.**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이아영**
모델 **Diana**(Jennifer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에르메스 02-542-6622
토즈 02-3438-6008
샤넬 080-805-9628,
www.chanel.com
랄프 로렌 컬렉션 02-3467-6560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셀린느 by 에디 슬리먼 1577-8841
로로피아나 02-546-0615
구찌 02-3452-1521

1 프로방스의 수려한 풍경으로 유명한 뤼베롱 국립공원 한가운데 있는 럭셔리 리조트 코키야드 프로방스(Coquillade Provence). 빼어난 경치만이 아니라 스파, 와인, 미식, 사이클링, 테니스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자동차로 아비뇽에서 45분, 마르세유 공항에서 1시간 정도, 아를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2 특유의 안락한 프로방스풍 인테리어와 더불어 창립자 집안 사람들의 문화 예술 취향이 어우러진 분위기가 매력적이다. 3 계절마다 나름의 매력을 뽐내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실외 스파. 명성 높은 스파 시설과 제품으로 알려진 이 리조트의 스파는 다양한 종류의 시설과 장비, 숙련된 테라피스트는 물론 자연과 호흡하는 듯한 '치유'의 분위기도 장점이다. 실내 스파에는 '뉴비(Newby)' 브랜드의 티를 마시는 라운지도 갖추었다. 4 영롱한 푸른빛을 띠는 아름다운 풀. 코키야드 프로방스는 유서 깊은 포도밭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이 장점인 100에이커 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5 포도밭을 바라보며 지역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조식을 즐기는 공간. 코키야드에는 세계적인 스타 셰프 알랭 뒤카스의 제자인 젊은 셰프 피에르 마티(Pierre Marty)가 미식의 품격을 책임지고 있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아블랑(Avelan)을 비롯해 이탈리언 레스토랑 치프레사(Cipressa), 프로방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레 비뉴(Les Vignes), 그리고 2개의 바도 있다. 6 세련미와 정겨운 소박함을 동시에 품은, 저마다 다른 유형의 객실 63개를 갖추었다. 전용 풀과 정원 등이 딸린 객실에서 스파 시설에 언제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5개의 새로운 럭셔리 스위트도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 미리 엿보니 친구, 연인은 물론 가족 단위를 포용하는 디자인이 돋보인다. Photo credit_Thomas Eugster ※ 1, 2, 4, 5 Photo by 고성연 ※ 주소 Le Perrotet, 84400 Gargas-France, Luberon

Coquillade Provence
(코키야드 프로방스)

an idyllic Sanctuary

신이 유달리 정성을 기울여 매만진 듯한 천혜의 자연이 펼쳐지는 프로방스의 풍광은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서유럽의 겨울에도 따스한 포용력을 불어넣는다. 능선이 둥그스름한 산들이 병풍처럼 주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저마다의 자태를 새초롬하게 뽐내는 멋들어진 나무들을 보면 누군가의 다정한 인사를 받지 않아도 어쩐지 '환대'받는 느낌이 든다. 물론 상큼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차 한잔을 건네는 손길을 대하면 묘한 안도감까지 더해지며 비로소 휴식처를 제대로 찾아왔구나 싶지만 말이다. 자코메티의 조각처럼 날씬하고 길게 뻗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사이프러스 사이로 한적하게 자리하고 있는 낮은 언덕 위의 고요한 리조트. 남프랑스풍 럭셔리로 유럽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은 코키야드 프로방스(Coquillade Provence)는 첫인상부터 지친 심신을 보듬어주기라도 할 듯한 평화롭고 정겨운 '안식처'로 다가왔다.

'여행자의 공간'인 호텔은 잠깐이라도 머무르는 낯선 이들을 포근히 감싸안고 안식을 제공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지만, 처음에는 거리감이 들기 마련이다. 아무리 빼어난 시설을 지닌 특급 호텔도 어느 정도는 '정 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려하고 출중한 인프라를 갖추었는데도 어쩐지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마르세유 공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쯤 걸려 도착한 코키야드 프로방스(Coquillade Provence)는 분명 '영상'의 기온으로 동북아시아인 입장에서는 나름 견딜 만하지만 이 지역 기준으로는 춥다고 투덜대는 겨울철에 찾았는데도 왠지 따스하고 정겨운 기운이 감돌았다.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리셉션에서 첫눈에 시선을 잡아끄는 벽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면서 여유롭게 체크인한 다음, 밖으로 나가 낭창낭창한 나무들 사이로 걸어가면서 숙소로 향하는데, 마침 잠시 마중을 나온 듯한 햇살의 춤사위 너머로 산과 들판이 눈부시게 빛나는 프로방스 특유의 매혹적인 풍광이 펼쳐진다. 뤼베롱 계곡에 자리한 이 리조트의 우월한 위치 덕분에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다. 여러 객실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분위기도 소박하고 온화하다. "건축 계획, 그것은 땅 그 자체다"라고 했던 알바루 시자의 말이 떠오른다. 전원풍 객실은 온화한 정서를 머금은 연갈색과 베이지 색조, 소박하면서 앙증맞은 디자인의 인테리어로 거리감을 좁혀주는 듯하다. 프로방스 사람들의 혀를 즐겁게 해주는 디저트 '칼리송'과 커다랗고 달콤한 페이스트리, 오렌지로 허기를 기분 좋게 채우고 페퍼민트 차를 곁들이니 결국에는 스르르 낮잠에 빠져든다.

11세기의 아담한 마을, 안식을 주는 리조트가 되다

사실 프로방스 지역의 대다수 리조트는 겨울 내내 문을 닫는다. 따뜻한 날씨와 싱그러운 녹음, 꽃향기 가득한 경치를 즐기러 오는 이들이 많아서다. 코키야드 프로방스는 소유주 집안의 전략적 결정으로 12월에도 문을 열어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러 오는 손님을 맞이한다(연초에는 휴지기를 가진다). 초여름이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자주 입에 오르는 고르드(Gordes)와 루시용(Roussillon)의 라벤더 만발한 풍경을 담으러 자전거를 빌려 돌아다녔겠지만(혹은 테니스를 치거나), 겨울이면 게으름을 피울 수 있다는 나름의 장점도 있다. 스파를 즐기면서 그저 먼발치에서 오밀조밀한 산의 능선과 시원하게 펼쳐진 포도밭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수려한 2개의 야외 풀을 비롯해 실내 풀을 낀 스파 시설, 3개의 레스토랑과 2개의 바를 갖춘 코키야드 프로방스는 '웰빙 스파'와 '미식'으로 명성 높은 곳 아닌가. 원래 리조트 부지는 수도사들이 11세기에 세운 작은 마을이었는데(지금도 부지 내 작은 우물이 있다), 2세기가 흐른 뒤에는 포도나무가 탐스럽게 자라면서 지금에 포도원인 오레토(Aureto)로 이어졌다. 와인과 사이클링을 향한 사랑이 지극한 스위스 출신의 사업가 안드레아스 리스(Andreas Rihs)가 투자를 결정해 2008년 28개 객실과 스위트를 갖춘 럭셔리 리조트로 문을 연 코키야드 프로방스('코키야드'는 새 이름이다)는 2010년 를레 & 샤토(Relais & Châteaux, 역사와 전통을 지닌 최고의 호텔과 명성 높은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연합) 호텔로 지정되고, 이듬해 5성급 호텔 인증을 받는 등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나갔다. 이어 2015년 시설을 크게 확충하고 2021년 대대적인 레노베이션까지 단행했는데, 이후 '트래블 앤드 레저'가 뽑은 프랑스의 '베스트 리조트' 1위에 올랐고(2022년) 최근에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서 5성 호텔로 선정되기도 했다. 머지 않아 전용 풀을 갖췄을 뿐 아니라 객실에서 스파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럭셔리 스위트도 여럿 공개될 예정인데, 친구나 연인은 물론 가족 단위로 심신의 균형을 되찾는 '힐링 체류'를 하기에 안성맞춤일 듯하다.

지금은 창립자의 아들들인 올리버와 토비아스 형제가 리조트 운영을 맡고 있는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애정 어린 취향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범상치 않은 회화와 조각, 텍스타일 작품이 눈을 호강시켜주는데, 프로방스에서 살았던 피카소의 프린트도 보인다. 그리고 로비에는 작은 서재가 있는데, 대문호 헤르만 헤세(1877~1962)의 책상과 작품도 놓여 있다. 알고 보니 이 형제는 헤세를 증조부뻘로 모시는 후손이란다. 홈페이지 www.coquillade.fr 글 **고성연**

Brand-new Beauty

아모레퍼시픽이 타고난 피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고성능 하이엔드 스킨케어 에이피 뷰티(AP BEAUTY)로 재탄생한다.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이 아름다움의 새로운 경지를 여는 스킨케어의 정점 '에이피 뷰티(AP BEAUTY)'로 재탄생한다. 새로워진 에이피 뷰티는 최고급 스킨케어 시장의 글로벌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 피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의료 미용 시술이 병용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에이피 뷰티는 고효능 하이엔드 스킨케어 브랜드로 전면 리브랜딩을 진행했으며, 기존 브랜드와 기업이 지닌 피부 연구 헤리티지는 계승하면서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효능 성분과 기술을 더해 새롭게 태어났다. 에이피 뷰티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70년 이상 축적한 피부 연구 자산과 3천여 건이 넘는 특허 기술의 집약체로 세 가지 핵심 요소인 '혁신적 기술', '독자 개발', '압도적 효능'에 집중해 기존의 통념과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피부 경험을 제공한다.

타고난 피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한 제품만 출시한다는 원칙하에 에이피 뷰티는 브랜드의 새로운 대표 라인으로 'M.D. 라인'을 선보인다. 대표 제품은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이다. 피부 특수 케어에만 사용되던 고효능 성분과 기술을 아모레퍼시픽그룹에서는 에이피 뷰티가 최초로 화장품에 접목했다.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은 고성능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브랜드 독자 개발 특허 성분인 PDRN과 엑소인(EXOYNE)의 시너지로 단기간에 강력한 피부 회복 및 리프팅 효과를 선사한다. 피부 특수 케어에서 유래한 초고함량 PDRN 성분은 피부 표층부터 심층까지 촘촘하게 효능을 전달하며, 엑소인 역시 기존 탄력 개선 화장품에 자주 사용하던 펩타이드 성분 대비 34%* 이상의 강력한 효능으로 피부 탄력 핵심 인자를 타기팅해 피부 탄력을 촉진한다. 또 특허 받은 제형이 피부 10층**까지 깊숙이 침투해 3일 만에 88% 피부 장벽 회복을 도우며, 4주 후 50.6% 탄력 개선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고강도 특수 케어 후 사용 시 더욱 드라마틱한 피부 개선 효과를 이끌어낸다. 인체 적용 시험에 따르면,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을 사용한 고객이 일반 크림 사용자 대비 213%***의 탄력 개선 효과와 202% 높은 손상 장벽 회복률을 보이는 등 탁월한 피부 개선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크림이 피부 치밀도를 개선하고 자극받은 피부 장벽의 회복을 촉진해 특수 케어의 효능과 지속력을 극대화함을 확인했다.

에이피 뷰티(AP BEAUTY)가 제안하는 새로운 차원의 솔루션

스킨케어의 정점 에이피 뷰티는 리브랜딩과 차별화된 신제품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간 VIP 고객을 위한 론칭 뷰티 클래스를 진행했다. 에이피 뷰티의 뷰티 클래스에서는 고성능 스킨케어 솔루션으로 재탄생한 브랜드 스토리와 브랜드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핵심 제품을 선보였다.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디비전 김종하 상무와 에이피 뷰티 브랜드 수석 아티스트, 책임 연구원 및 자문위원 김민주 원장이 참석, VIP 고객에게 브랜드와 제품을 직접 소개해 화제가 됐다.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제품은 브랜드의 대표 상품인 M.D. 라인의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과 프라임 리저브 리트리니티 세럼이다.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은 브랜드 최초 피부 특수 케어 기술을 융합해 단기간 강력한 리페어와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는 리페어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피부 특수 케어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단독 사용뿐 아니라 고강도 케어 후 사용 시 2배 더 드라마틱한 리프팅과 리페어 효과를 선사한다. 한편 프라임 리저브 리트리니티 세럼은 타고난 피부의 한계를 넘어 최상의 피부를 오래도록 지속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안티에이징 컬렉션으로, 하룻밤 만에 압도적인 탄력, 결, 투명도 개선 효과를 선사한다. 브랜드 독자 개발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228K™를 초고함량 함유해 타고난 피부 인자를 리프로그래밍****해 피부의 한계를 역전시킨다.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김종하 상무는 "타고난 피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에이피 뷰티의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피부 연구 자산 중 최고 수준의 성분과 기술만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라며 "이를 통해 스킨케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에이피 뷰티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오랜 VIP 고객분들께 새롭게 태어난 브랜드의 스토리와 가치를 공유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타고난 피부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모든 고객들의 도전과 함께하는 에이피 뷰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화장품의 한계, 시간의 한계, 타고난 피부의 한계 등 에이피 뷰티는 통념과 한계에 대한 도전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기존의 수준을 뛰어넘는 제품만 선보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브랜드만의 철학과 원칙을 바탕으로 스킨케어 최정점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에이피 뷰티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문의 080-023-5454 에디터 **성정민**

* In-vitro 시험 결과
** 각질층 10번 테이핑 기준
*** 4주 사용 후 일반 크림 대비 자가 스코어링 변화율의 개선 비율
**** 새로 태어난 피부처럼 젊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안티에이징 효과

1 리브랜딩과 차별화된 신제품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 VIP 뷰티 클래스 현장. 2 피부 특수 케어 기술을 브랜드 최초로 융합해 압도적인 리페어 &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크림,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 3 에이피 뷰티의 대표 스킨케어 라인인 프라임 리저브 라인과 M.D. 라인의 크림과 세럼. 4 VIP 클래스에서는 정확한 피부 측정과 에이피 뷰티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에이피 뷰티의 새로운 라인인 M.D. 라인의 대표 제품,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을 촬영하고 있는 고객.

editor's Pick

봄철 피부 고민은 덜어주고 프레시함을 채워줄 이달의 뷰티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맥 레트로 매트 립스틱 이터널 테디** 딥한 느낌의 로즈 브라운 컬러로 고혹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때 제격이다. 매트하고 선명한 발색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이 장점. 에디터는 치크 부위에 가볍게 톡 터치해 블러셔로 활용했더니 고풍스러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었다. 3g 3만8천원. 문의 02-3440-2782 *_by 에디터 윤자경*

버버리 뷰티 아이 쿼드 아이섀도우 팔레트 01 아이코닉 허니 버버리를 대표하는 트렌치코트에서 영감받아 캐러멜, 베이지 등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컬러를 담아냈다. 평소 눈매를 살려주는 음영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편이라 덧발라도 자연스러운 그러데이션 발색과 뛰어난 지속력이 마음에 들었다. 고혹적인 분위기 연출에도 제격인 뷰티템이다. 4.7g 8만3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신정임*

조 말론 런던 진저 비어 코롱 영국을 대표하는 음료, 진저 비어의 스파이시한 우디 향을 담았다. 자연에서 얻은 생강의 싸한 신선함, 따뜻한 시나몬, 강렬한 로스티드 오크와 대조를 이루는 유니크한 향이다. 사계절 두루 사용하기 좋을 듯. 30ml 11만4천원대. 문의 02-6971-3228 *_by 에디터 장라윤*

폴라 화이트샷 페이셜 세럼 피부 진피층의 멜라닌 형성을 억제해 다크 스폿의 근본 원인부터 케어해준다는 미백 세럼계의 혁명과도 같은 제품이라 해서 기대가 컸다. 광대 쪽에 늘 주근깨인지 기미인지 모를 다크 스폿을 달고 살았기 때문. 한 달간 꾸준히 사용 중인데, 다크 스폿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확연히 옅어진 듯한 느낌. 25ml 17만5천원. 문의 1688-9138 *_by 에디터 성정민*

어글리 러블리 유자 마스크 유자청이 연상되는 진득한 제형을 피부에 듬뿍 바르고 롤링하니 하얀 텍스처로 바뀌면서 은은한 온열감이 느껴졌다. 세안하고 났더니 피부가 맑고 투명하며 한층 환해졌다. 고흥의 못난이 무농약 유자 추출물을 함유했다니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지구까지 생각하는 뷰티 케어를 한 듯한 뿌듯함은 덤! 100g 2만8천원. 문의 080-023-7007 *_by 에디터 윤자경*

라엘 뷰티 미라클 클리어 수딩 스팟 젤 월경으로 호르몬에 변화가 생기면 여드름이 올라오기 십상이었는데, 시카와 티트리 잎 추출물이 들어 있어 트러블 진정에 효과적이었다. 특히 말랑말랑한 펜 타입 애플리케이터를 장착해 트러블 부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4ml 1만4천원대. 문의 070-4289-3308 *_by 에디터 신정임*

사봉 2 in 1 페이스 폴리셔 인둘징 로즈 '2 in 1 페이스 폴리셔' 론칭 10주년을 기념해 올 한 해 특별한 향과 성분을 담아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 클렌징과 각질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사해 미네랄 성분과 부활초 추출물, 다마스크 로즈 에센셜 오일을 담아 사용 시 은은한 장미 향과 더불어 하루 한 번 꾸준한 사용으로 피붓결을 부드럽게 가꿔주었다. 200ml 7만원. 문의 1833-6763 *_by 에디터 신정임*

닥터포헤어 헤리티지 샴푸 얼그레이 블리스 머리카락 끝이 부스스해지고 전체적으로 퍼석거려 자꾸 신경이 쓰이던 찰나, 두피 케어 센터에서 시작해 더마 헤어 케어 기술력을 담은 이 제품을 만났다. 텍스처와 거품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트리트먼트를 섞은 것 같은 부드러움이 장점. 이 제품 하나로 모든 케어를 해결할 수 있을 듯한 느낌이다. 500ml 3만2천원. 문의 1670-5875 *_by 에디터 장라윤*

딥티크 카페 캔들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메종 드 카페인 '카페 베를레'와 협업해 출시한 컬렉션의 캔들로 볶은 원두와 에스프레소 커피 향을 담았다. 책상에 올려두었더니 파리의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나 날 듯한 은은한 커피 향이 계속 맴돌아 힐링되는 느낌. 커피 향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특히 추천한다. 190g 10만4천원. 문의 02-3446-7494 *_by 에디터 성정민*

샤넬 수블리마지 라 로씨옹 아침 세안 후 제일 처음 피부에 닿는 제품은 산뜻하고 가벼운 것을 선호한다. 모이스처라이징 토너인 이 제품은 부드럽게 스며들어 스킨케어 루틴의 첫 단계로 안성맞춤. 향도 기분 좋게 은은하고, 텍스처도 적당해 아침을 마음 편안하게 시작하도록 해준다. 125ml 21만1천원. 080-805-9638, www.chanel.com *_by 에디터 장라윤*

발렌티노 뷰티 고-쿠션 글리터 에디션 그린 스트라바간자 #LN2 전면의 V 시그너처 디테일에 글리터 그린 디자인 패키지만으로도 소장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뿐만 아니라 한 번의 터치만으로 피부에 밀착되어 모공을 촘촘하게 커버하고 고급스러운 세미 매트 피부를 연출해준다. 또 보습 성분을 함유한 포뮬러가 피부를 땅김 없이 편안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주어 만족스러웠다. 14g 11만4천원대. 문의 080-835-0074 *_by 에디터 윤자경*

메이블린 뉴욕 슈퍼 스테이 루미매트 파운데이션 #N10 클린 뉴트럴 평소 피붓결을 살리는 메이크업에 공을 들이는 편. 펄 피그먼트가 들어 있어 어느 각도에서든 진줏빛 광채 피부를 선사한다. 여기에 산소처럼 가벼운 포뮬러로 편안하게 밀착되며,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고 지속된다. 수정 시 여러 번 덧발라도 글로와 매트 사이 질감이라 밀리지 않는 것도 장점. 30ml 3만5천원대. 문의 080-565-5678 *_by 에디터 신정임*

다비네스 위 스탠드 포 리제너레이션 헤어 앤 바디 워시 바 최근 다 쓰고 버리는 화장품 공병이 신경 쓰여 비누 형태의 샴푸나 보디 워시에 관심을 가지던 차 만나게 된 제품. 꽤 단단해 잘 무르지 않고 은은한 향과 풍성한 거품, 개운한 세정력까지 모두 만족스럽다. 결정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비누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100g 2만3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성정민*

※ 장라윤(40대 건성), 성정민(30대 민감성), 윤자경(30대 복합성), 신정임(20대 지·복합성)

SHOWROOM

몽블랑

보테가 베네타

JEWEL & WATCH

불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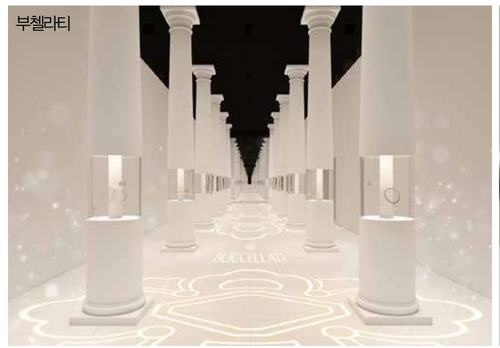
불가리 블랙핑크 리사와 함께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 불가리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블랙핑크 멤버 리사와 협업해 완성한 '불가리 불가리 X 리사' 워치를 공개했다. 로즈 골드 소재의 브레이슬릿과 스틸로 구성했으며, 불가리 로고를 인그레이빙한 로즈 골드 베젤, 다이아몬드 인덱스, 머더오브펄로 장식한 모자이크 다이얼이 특징이다.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한 이번 신제품은 33mm와 23mm, 2가지 케이스로 구성했으며, 각각 1천1백 개, 4백 개 한정 수량으로 출시한다. 문의 02-6105-2120

브레게 부티크 매장 리뉴얼 오픈 브레게가 갤러리아 명품관 EAST 지하 1층에 위치한 브레게 부티크를 리뉴얼해 선보인다. 국내 최초로 브레게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녹인 콘셉트형 부티크로, 케이스 밴드의 플루팅 디자인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가구와 기요셰 작업이 연상되는 카펫 패턴 등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여성을 위한 레인 드 네이플 컬렉션의 새로운 민트 컬러와 신제품 타입 XX 컬렉션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905-3571

브레게

부첼라티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대규모 회고전 부첼라티가 메종의 유산을 담은 다양한 작품과 함께 대규모 회고전 〈금세공의 왕자, 클래식의 재발견(The Prince of Goldsmiths, Rediscovering the Classics)〉을 베네치아 오피치네 800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마크리 컬렉션의 브레이슬릿부터 안드레아가 디자인한 가장 최근의 모자이코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튤 펜던트 등을 살펴본다. 문의 02-6905-3490

그라프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그라프에서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의 새로운 뱅글을 공개했다.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으며, 아시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 이번 신제품은 화이트 · 로즈 · 옐로 · 골드 소재에 클래식하거나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포인트로 더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했다. 레이어링해 다채로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이번 신제품은 소중한 이를 위한 기프트로도 제격이다. 문의 02-2256-6810



부첼라티

그라프

FASHION

샤넬

투미

토즈

샤넬 2024 S/S 레디투웨어 캠페인 샤넬이 프랑스 남부 빌라 노아유의 예술적인 분위기를 담은 샤넬 2024 S/S 시즌 레디투웨어 컬렉션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선보인 다채로운 컬러에 기하학적 패턴으로 완성한 컬렉션 룩을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토즈 2024 고미노 여성 컬렉션 이탈리언 럭셔리 브랜드 토즈가 2024 S/S 시즌을 맞이해 새로운 스타일의 고미노 슈즈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에서 공개한 볼드한 페블 밑창과 컬러풀한 색감이 돋보이는 고미노 버블 슈즈는 스웨이드와 레더 소재, 2가지 버전으로 출시했으며, 케이트 메탈 체인과 미니 태슬 장식을 더한 무광 레더 소재의 시티 고미노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보테가 베네타 친환경 소재 '히코리 데님'으로 이루어진 제품 출시 보테가 베네타에서 에크루와 네이비, 2가지 컬러의 실을 특수 기법으로 염색해 빈티지한 무드를 풍기는 히코리 데님 소재 아이템을 출시했다. 브랜드의 시그너처 인트레치오 위빙 디테일로 완성한 아르코 토트백, 카세트 백을 비롯해 지갑, 카드 홀더, 파우치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3438-7694

몽블랑 새로운 디자인과 컬러의 2024 S/S 레더 컬렉션 몽블랑에서 2024 S/S 시즌을 맞이해 새로운 레더 아이템을 출시했다. 하우스를 대표하는 컬렉션인 사토리얼 라인에서는 카드 봉투에서 영감받은 더블 백과 스몰 더블 백 디자인을 추가로 공개하며 엠보싱 레더가 특징인 4810 라인에서는 미디엄 사이즈의 몽블랑 142 백과 스틸 컬러의 미니 메신저 백을 선보였다. 문의 1877-5408

투미 새로운 핸드백 라인, 아스라 컬렉션 투미에서 핑크부터 퍼플까지 다채로운 봄 컬러를 담은 아스라 컬렉션을 공개했다. 부드러운 레더 소재에 매듭 형태의 숄더 스트랩으로 완성했으며, 스몰부터 라지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했다. 더불어 별도로 판매하는 가죽 모노그램 참을 이용해 스타일리시한 나만의 백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539-8950

LIFESTYLE

리모와

시몬스

리모와 오리지널 파일럿 블랙 리모와에서 오리지널 파일럿 케이스에 매트한 블랙 컬러를 입혀 도회적이고 시크한 무드를 자아내는 신제품을 출시했다. 비행기에서 영감받은 그루브 알루미늄 셸을 사용해 내구성이 좋고 위로 열리는 구조로 접근성까지 높였다. 또 쿠션 패드를 더한 수납공간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며, 16인치 노트북을 넣을 수 있다. 문의 02-546-3920

시몬스 비건 매트리스 컬렉션 'N32' 업계 최초 비건 인증 획득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의 비건 매트리스 컬렉션 'N32' 전 제품이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컬렉션은 국내 침대업계에서 최초로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N32 스프링 매트리스를 포함한 전 제품의 원단과 패딩에 비건 소재인 '아이슬란드 씨셀(SeaCell™)'과 통기성이 뛰어난 리넨을 적용했다. 문의 1899-8182

랄프 로렌 홈

랄프 로렌 홈 브린리 컴포터 타임리스한 클래식을 전개하는 랄프 로렌에서 빈티지 보태니컬 블록 프린트를 모티브 삼아 탄생한 할로우 컬렉션의 브린리 컴포터를 선보였다. 슬러브 코튼 소재를 사용해 부드럽게 감싸주며, 보헤미안 오아시스가 연상되는 꽃송이와 다채로운 새 모티브로 완성했다. 문의 02-6004-0221

BEAUTY

시세이도

디올 뷰티

시세이도 더 퍼펙트 프로텍터 SPF 50+ PA++++ 시세이도가 물, 땀, 고온, 초미세 먼지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더 퍼펙트 프로텍터'를 제안한다. 브랜드의 독자적인 기술인 싱크로쉴드™ 테크놀로지를 통해 흐르는 땀은 물론 높은 온도에도 강력한 자외선 차단막을 생성해 피부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며,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80-564-7700

디올 뷰티 2024 디올 어딕트 립스틱 디올 뷰티에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 하우스를 대표하는 립 아이템, 디올 어딕트를 5가지 파스텔컬러와 3가지 패션 케이스로 출시했다. 재스민 왁스와 식물성 오일 성분으로 크림처럼 부드러운 텍스처를 자랑하며, 입술에 편안함을 선사한다. 아울러 핑크 오블리크부터 로즈매니아, 실버 까나쥬 등 3가지 다채로운 패션 케이스로 그날의 기분과 룩에 맞춰 다양한 립 컬러와 믹스 매치할 수 있다. 문의 080-342-9500

지방시 뷰티 로즈 퍼펙토 리퀴드 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방시 뷰티의 아이코닉한 립밤인 로즈 퍼펙토에 마블 리퀴드 텍스처를 더해 쿠튀르 리퀴드 밤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시어버터, 히알루론산, 비타민 C 유도체 성분 등을 담아 하루 종일 촉촉하고 볼륨감 넘치는 입술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80-801-9500

지방시 뷰티

CHANEL